

『국민문학』 소재 한국작가의 일본어 소설 연구*

노상래**

< 목 차 >

- I. 서론
- II. 친일문학규정을 위한 제언
- III. 내선일체와 대동아공영권을 옹호하는 친일작품
 - 1. 내선연애담 혹은 내선결혼담
 - 2. 지식인의 껍질 벗기, 그리고 총량한 신민 되기
 - 3. 국민의 이름으로 호명되는 여성의 ‘국민화 프로젝트’
 - 4. 오족협화론과 만주 개척
 - 5. 징병·징용을 통한 천황의 국민되기
- IV. 결론

<Abstract>

A study on Japanese novels published in 『*Gug-min-mun-hag*』 and authored by Koreans in Japan's colonial period

Roh, Sang-rae

This paper examines about fifty Japanese novels published in the People's Literature, that is, 『*Gug-min-mun-hag*』 and written by Korean authors in the colonial period. The results are that the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03-A00117)

** 영남대학교 교수

majority of these novels can be generally categorized into pro-Japan literature, that is, *Chin-il-mun-hag*. Specifically, their topics include the followings: a romance between Japanese and Korean adults under Japan's colonial rule, a picture of Korean intellectuals losing their ethnic identities and being loyal to the Japan, and a story to support Japan's action mobilizing Korean women for comfort girls and having Korean men enlisted for his imperialistic war. There are also some novels which criticize an imperialistic policy called "Japan and Korea are one" also known as *Nae-sun-il-che*. However, the number of anti-imperialism novels has gradually decreased as the War gets massive and fierce. Besides, the novels under investigation are close to pure fictions in terms of their genres.

I. 서론

근대성에 입각해 본다면, 민족은 개인의 의식과 생활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방식으로 그 정체성을 확보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민족을 구심점으로 삼으려 하는 대신 민족에서 원심력에 의해 파생되어 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렇다면 압후기 작가를 ‘반민족적’이라는 민족 구심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프리즘에서 분광된 작가들의 빛을 살펴 그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개별적 특성에 기초한 압후기 작가들의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국민문학』(1941년 11월 창간)은 문예월간지로 일제의 “황도정신(皇道精神) 양양에 적극 협력하라”는 강제적 종용에 의해 최재서 주재하에 년 4회 일문판, 8회 국문판(그러나 제2권 제5호부터는 계속 일문판)

으로 발간한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의 정강정책을 대변하던 대표적인 친일문예지다. “조선문단이 혁신을 꾀하여 새로운 의도와 구상 아래 거듭날 것”¹⁾을 강요하는 시대 분위기에 맞추어 창간된 이 잡지는 가장 우선의 목표로 삼은 것이 “기로에 선 조선문학에 국민적 정열을 불어 넣는 것”이었다.²⁾

그런데 여기서 ‘국민적 정열’이라 함은 임전 태세를 갖추어 문학으로써 멸사봉공하려는 정열을 의미함인데, 그것을 가리켜 진보니 혁신이니 칭하면서 예술적 가치를 국민적 양심에 따라 수호할 것을 강조하였다.³⁾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체 관념의 명징(明澄)’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적 파시즘에 깊이 발 담그고 있던 시대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국민문학』의 나아갈 방향은 처음부터 명확히 설정되어 있었다.

문학은, 특히 소설은 삶의 실감을 다룬다. 따라서 암흑기 소설을 창작하던 작가들 또한 실감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제하 강압의 현실 속에서 작가들은 뭔가를 고뇌했을 것이고, 그것을 문자의 힘을 빌려 표출하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시절의 어려움에 기대어 당시 모든 작가들이, 특히 일본어로 써낸 작가들의 모든 작품이 하나 같이 친일 일색이었을까 의문이 인다.

이 연구가 관심 가지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작가의 고뇌를 살피려 한다. 특히 일본어로 창작한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여 그들의 고뇌를 살펴봄으로써 작가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한다. 그런 이유로 암흑기에 활동한 작가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려 한다. 일제의 국책에 부응하기 위해 창간된 『국민문학』에 작품을 발표한 작가들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들에 대한 판단을 하려 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에 대한 정당한 자리매김의 기틀을

1) 「朝鮮文壇の革新-卷頭言」(『국민문학』, 1941. 11.), 3면.

2) 위의 글, 3면.

3) 위의 글, 3면.

마련하려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국민문학』 소재 이중어 소설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안을 두겠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친일문학과 관련된 부분만 언급하려 한다. 추후에 그를 달리하여 비친일문학 작품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려 한다.

II. 친일문학 규정을 위한 제언

임종국은 친일문학은 ‘주체적 조건을 상실한 맹목적 사대주의적인 일본 예찬과 추종을 내용으로 하는 문학’으로 정의하고 있다.⁴⁾ 주체성 상실 문학이 친일문학이라 할 때 그것은 중일전쟁을 전후한 전쟁문학, 충후의식을 강조한 애국문학, 40년대 전반의 국민문학, 그 후의 결전문학 등을 의미한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국책문학이다.

국책문학은 천황을 절대이데올로기로 상정하고 내선일체와 대동아공영권을 신념으로 받아들인 문학이다. 징병, 징용, 충후 등의 추상적 신념이 구체적 현실로 둔갑하는 과정에 국책문학은 매개물로 작동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절대 신념이 현실에서 추상적으로 걸돌 때 소위 친일문인들은 현실에 적극 개입하여 그것을 몸소 실천해 보였다. 여기서 역사적 현실 감각이라는 말은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아니, 그것은 이미 현실적 관념이 아니다. 당시의 역사는 이미 역사 자체를 뛰어넘고 있었다. 신념만 있었지, 어떤 객관적 판단에 의해 자의적으로 자신의 의사와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나고 있었다. 천황이데올로기는 조선에서 대동아공영권이니 내선일체니 하는 허황된 이름으로 모든 가치를 맹목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럼에도 그것을 역사라 부를 수 있다면 관념 속에서만 일 것이다.

4) 임종국, 『친일문학론』(평화출판사, 1983), 16면.

천황만이 가장 가치 있는 도덕이고, 신념이라 할 때 문인들이 쓸 글감은 당연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전쟁기 동안 천황일계(天皇一界)를 이전보다 훨씬 더 고조시켜 가던 때에 조선문인의 문필 활동은 어떤 원심력도 발휘할 수 없었다. 당연히 천황이라는 구심점을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마당에 친일 아닌 작품을 찾아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이다.

『국민문학』은 허황된 역사가 만들어낸 시대적 산물이다. 그렇지만 외면할 수 없는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 중일전쟁 이후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한 일본은 동아시아의 신질서 수립을 주창한다. 소위 신체제론인데, 이는 곧장 대동아공영권의 논리로 확대된다.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위해 성전이라 불리는 전쟁은 필수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모든 것은 재정비되었다. 징병이니, 징용이니, 학도병이니, 지원병이니, 총후니, 보국이니, 멸사봉공이니 하는, 전대에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어 유포되고, 뿌리 내려, 강제력을 가진 구체어로 사람들의 뇌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모든 사고와 가치의 중핵은 전쟁이었다. 문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언론은 통제될 필요가 있었고, 전쟁의 당위성과 그것에의 자발적 동참을 위해 도구화되어야 했다. 조선문단은 일대 전환기를 맞지 않을 수 없었다. 전환기에 문화주의의 청산과 국가주의로의 전환은 문단에서 행해야 할 우선의 과제가 되었다.⁵⁾ 『국민문학』은 이를 문학적 성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4월에 들어서자 조선문단은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한글 문예 잡지 통합 문제였다. 동아·조선 양 신문이 없어진 후, 조선문학은 유력한 지지자를 잃고, 힘 있는 수종의 한글 문예 잡지, 특히 이태준 씨가 주관하던 文章과 필자가 편집하던 人文評論에 의지할 수밖에

5) 최재서, 「朝鮮文學의 現段階」, 최재서, 『轉換期の朝鮮文學』(인문사, 1943), 82면.

없었다. 그리고 이 두 문에 잡지가 부득이하게 통할될 수밖에 없었다. 경무 당국이 주동하였다. 당면한 이유는 말 할 것도 없이 용지 절약이었다. 그렇지만 당국으로서는 이 기회에 잡지를 통제함으로써 조선문단의 혁신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생겨난 것이 지금의 『國民文學』이다.⁶⁾

‘용지 절약’과 ‘조선문단의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국민문학』인 셈인데, 이 잡지가 느닷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조선문단의 혁신’이라는 말이다. 혁신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국민문학』 창간의 전사로 당시 조선에서 행해진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6년 8월에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1937년 4월에 통치의 기본방침으로 발표한 5대 정강-國體明徵, 鮮滿一如, 敎學振作, 農工併進, 庶政刷新-을 발표한다. 이것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던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총독이라는 위치가 말해주듯이 조선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책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위 정강이 제 힘을 발휘할 사건이 불과 3개월 후에 발생한다. 바로 중일전쟁이다. 이 전쟁을 계기로 내선일체 정책은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된다.

이번 사변이 가져오는 직접·간접의 형이상하에 걸친 영향과 우리들이 시행하고 있는 일들을 검토해 볼 때 5대 방침은 통치의 근본 취지인 내선일체의 본류에 바탕하여 더욱 새로운 의의를 지니며 그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⁷⁾

6) 위의 글, 82-3면.

7) 道知事會議ニ於ケル總督訓示, 1938年 4月 19日, (朝鮮總督府官房文書科編纂, 『諭告·訓示·演述總覽』),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동경 : 미래사,

내선일체야말로 조선지배의 근간이며, 거기에 기초하여 5대 정강도 한층 새로운 의의를 지니며, 실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주창하던 ‘대륙병참기지’론도 실제로는 내선일체론의 물질적·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론화하였다.⁸⁾ 따라서 내선일체론이 정신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내선일체론과 대륙병참기지는론은 하나라는 것이다.

내선일체는 대동아공영권의 뿌리이며, 동시에 한몸이라는 논리는 이후에 훨씬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 1938년 2월 22일 ‘육군특별지원병령’, 즉 지원병 제도를 만들어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조선인이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뒤이어 1940년 2월 창씨개명을 시행함으로써 ‘내선일체의 완성’을 꾀하게 되었다. “반도 전체를 皇土로 만들고, 반도 민중을 나무랄 데 없는 황민으로 만드는 것”이 미나미 정치의 목표였고, 미나미 정치는 “모두 이 목표 하에 계획되고 추진되었으며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⁹⁾

그리고 1942년 5월 8일, “조선동포에 대해 징병제를 시행하고 1944년부터 이를 징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추진할 것”이 결정되어 9일 공포된다. 드디어 조선인은 ‘천황의 적자(赤子)’가 되었기 때문에 <황공하옵게도> ‘황군 병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선일체의 마침표다.

『국민문학』은 이러한 일련의 차림표 속에서 ‘조선문단의 혁신’에 대한 요구가 절정에 달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내선일체와 징병을 통한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은 당연히 ‘국민문학’의 요건이었다. 이 잡지의 편집을 책임진 최재서의 말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최재서는 ‘창작 정신으로서의 국민의식’은 ‘국민문학에서 결정적 조

1997.), 151면 재인용.

8) 위의 책, 151면.

9) 宮田節子, 『朝鮮民衆과皇民化政策』(이영랑 역, 일조각, 1997.), 64면.

건'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⁰⁾ 그리고 그는 국민의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문학에서 국민의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신은 일개 개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이라고 하는 의식, 따라서 자기 한 사람으로는 의미도 가치도 없는 존재이며, 국가에 의해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다 고 하는 자각으로부터 문학상의 국민의식은 출발한다. 국가와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가치를 살리는 관계로 확실히 묶여질 때, 거기에 처음으로 문학상의 국민의식은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문학에서 국민의식은 항상 어느 구체적인 가치 의식에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¹¹⁾

최재서의 이 발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타자의 민족주의 개념은 사라지고 국가주의가 뿌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주의가 민족에 대한 국가주의로 전유되고 있는 것이다. 일체의 국민주의는 좌파와 대립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상상력을 갖게 했다.

베네딕트 앤드슨의 말처럼 민족은 근대 사회의 출현이 가져온 산물이라 할 때, 여기에는 주관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이 전제되어 있었다. 주관적 조건이란 민족에 속한 개인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민족적 특이성으로 긍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종의 자기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이 의식은 신문, 서적, 언어 등에 의해 동질적 시간을 살아가는 개인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소위 말하는 '상상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¹²⁾ 이것을 일러 민족의식이라 한다면 객관적 조건은 자본운동과 관련이 있다. 민족의 영토 분할이 자본의 영역 확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주관적 민족의식과 관련이 깊다는

10) 최재서, 「國民文學の要件」(『국민문학』, 1941. 11.), 35면.

11) 위의 글, 36면.

12) 베네딕트 앤드슨, 『상상의 공동체』(윤형숙 역, 나남출판, 2002.), 2장과 3장 참조.

점에서 개인의 정체성도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최재서의 위의 내용은 타자의 정체성에 대한 불인정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도 민족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있다. 그러나 타자의 정체성이 피식민지의 정체성으로 전유되었다면, 그것은 국민적 국가주의로의 귀속을 의미한다. 필자가 말하는 국민적 국가주의란 제국주의에 연동된 부르조아지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이럴 경우 국민은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호명된 주체일 뿐 민족주의에서 말하는 개체의 정체성이 보장되는 민족주의와는 다르다. 즉, 국민적 국가주의는 제국주의라는 전체주의에 의해 자신의 힘을 타자로 표상되는 개체에게 무자비하게 행사함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대신 국가이데올로기만이 최고의 가치로 평가되는 이데올로기다. 최재서는 바로 이런 국가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한 사람으로는 의미도 가치도 없는 존재”인 개체는 “국가에 의해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다”고 하는 생각은 국가가 절대적인 가치선이라는 ‘자각’이 있을 때나 가능하다. 국가가 총력전을 펴고 있을 때, 국가는 전쟁을 낳는 장치이고 국민은 전쟁의 희생자임과 동시에 전쟁의 수행자이길 강요당한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에게 줄기차게 국민화를 강요한다. 국민화는 ① 공간의 국민화, ② 시간의 국민화, ③ 습속의 국민화, ④ 신체의 국민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¹³⁾ 총력전에서 더욱 가치를 발하는 것은 신체의 국민화이다.

국민화된 신체는 조국을 위해 죽기를 희망하고, 다른 나라의 국민을 죽이는 것을 명예로 생각한다. 그 신체에 흐르고 있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맥박은 여전히 자연의 리듬이지만, 그 정신과 신체의 규율은 근대적인, 즉 국민국가적인 시간과 제도에 의해 주어져 있다.¹⁴⁾

13) 니시카와 나가오, 『국민이라는 괴물』(윤대석 역, 소명출판, 2002.), 70면.

14) 위의 글, 70면.

내선일체, 지원병제도, 창씨개명, 징병제, 그리고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국가적 정책은 결국 신체의 국민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천황의 충실한 신민’이니, ‘천황의 적자’니 하는 말로 바꿔 말했을 뿐이다. 최재서가 말하던 ‘조선문단의 혁신’은 ‘신체의 국민화’를 위한 ‘문학상의 국민의식’ 혁신을 말함이며, 『국민문학』의 창간은 그런 ‘국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필연적 산물이다.

이즈음에서 친일문학의 규정에 대해 눈을 돌리려 한다. 김재용은 친일과 비친일의 경계를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나누고 있다. 첫째, 일본어로 활동을 했다고 무조건 친일은 아니다. 편협한 언어민족주의에서 벗어난 결과이다. 둘째, 일제 말 사회단체 참여 여부로 친일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요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창씨개명을 친일의 지표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발성 여부와, 다른 하나는 내적 논리다.¹⁵⁾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발성 여부다. 이미 전체주의적 국가주의 단계로 접어든 총력전시대에 자발성을 가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태준은 해방전후에서 주인공 ‘현’의 입을 빌려 친일 냄새가 나는 행동을 한 것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만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을 경우 “마음 속 어느 귀퉁이에 강렬히 숨어있는 생명욕이 승리한 일본과 타협하고 싶지 않았던가”¹⁶⁾를 문제 삼을 경우 조선인 작가 가운데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고해성사하듯 양심고백을 하지 않는 다음에야 모든 친일 행위를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거

15) 김재용, 「친일문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시론」(『실천문학』 2002년 봄)

16) 문학자의 자기비판, 송기한 외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태학사, 1991.), 168면.

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친일문학을 가늠하는 잣대로 자발성 여부를 들여오는 것은 그 기준의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적용할 경우 친일문학을 가늠하는 절대적 준거는 되기 어렵다. 그럴 경우 남는 것은 내적 논리다. 즉 작품 속에 드러난 주제의식을 통해 친일성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다. 주제의식이란 내선일체론에서 촉발하여 대동아공영권으로 완성되어간 일련의 국가주의적 프로젝트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국민문학』에서는 다음의 향으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두고 있다.

① 국체 개념의 명징 : 국체에 반하는 민족주의적·사회주의적 경향을 배격하는 것은 물론, 국체관념을 불명징하게 하는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경향을 절대 배제함.

② 국민 의식의 양양 : 조선 문화인 전체가 항상 국민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생각하고 쓰도록 유도함. 특히 점점 더해가는 국민적 정열을 그 주체에 끌어들이도록 유의함.

③ 국민 사기의 진흥 : 신체제하의 국민 생활에 상응하지 않는 비애, 회의, 반항, 음탕 등의 퇴폐적인 기분을 일소할 것.

④ 국책에의 협력 : 종래의 불철저한 태도를 일체 내던지고 적극적으로 난국 극복에 온몸으로 앞장 섬. 특히 당국이 수립한 문화 정책에는 전면적으로 지지 협력하여, 그것이 각각의 작품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함.

⑤ 지도적 문화 이론의 수립 : 변혁기를 맞이한 문화계에 지도적 원리가 되어야 할 문화 이론을 하루 빨리 수립할 것.

⑥ 내선 문화의 종합 : 내선일체의 실질적 내용이 될 내선 문화의 종합과 신문화의 창조를 위해 모든 지능을 동원함.

⑦ 국민 문화의 건설 : 대체로 옹호, 명랑, 활달한 국민 문화 건설을 최후의 목표로 함.¹⁷⁾

결국 친일문학의 논의는 이 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7개

17) 최재서, 「朝鮮文學の現段階」, 83-84면.

요강에 부합하는 작품은 자발성 여부를 떠나 모두 친일문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표현어의 경우를 보자. 어떤 언어든지 언어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다.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특성과 문화 담지체라는 특성이 그것이다. 조선인에게 일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차용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문화 담지체로서 기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선인에게 문화 담지체로서 일본어가 인식된다면, 그 일본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문화어로서의 언어는 다음과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첫째, 문화는 그 스스로가 변영하는 역사의 산물이다. 둘째, 어린 아이의 마음 속에 이미지를 구축하는 대행인으로서의 역할이다. 셋째, 문화로서 언어는 나와 내 자아를 매개한다. 내 자아와 타인의 자아도 매개한다. 그리고 나 자신과 자연도 매개한다. 언어는 고로 내 존재의 매개인 셈이다.¹⁸⁾ 즉 언어는 그것이 매개하는 문화 속에 함유된 세계의 특수한 이미지를 전송한다. 그리고 그 문화는 언어 집단의 가치체계를 표상하기 때문에 특정 언어는 특정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언어가 특정한 문화를 대변하게 될 때 거기에는 특정한 가치 체계가 형성된다는 말이다.

일제하 조선인의 일본어 소설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다. 식민주의가 부의 사회적 생산을 통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군사적 정복과 뒤이은 정치적 통제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식민주의자들이 가장 염두에 두는 지배 대상은 피지배인의 정신세계이다. 그 정신세계는 문화적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문화어로서의 언어는 식민지배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정신 영역의 지배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일제하 조선인의 일본어 소설은 궁극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바라 봐야 한다.

18) 응구기 와 씨옹오,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 문학』(이석호 역, 인간사랑, 1999), 49-50면 여기저기.

식민자어가 피식민자의 관계성을 규정하는 도구로 설정될 때 그것은 타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즉 식민자어는 피식민자의 문화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말살하는 수단으로 식민자어를 전파하려 한다. 그리고 지배자의 언어적 가치를 피식민자의 그것보다 우월적 위치에 둠으로써 식민지 국민의 정신세계를 그들의 영향하에 두려한다.

일제 말기 일본어 상용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런 일본어를 문화어로 규정하고, 그것의 가치를 우월적 위치에 두고 문학을 도구로 삼아 전파하려 했던 ‘국민문학’ 혹은 ‘국책문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정치적 교양인을 만들려는 기획의 결과물이다. 교양인이 교양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면, 그것은 교양 문학과 유기적 관계 하에 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국민문학』은 창간은 이런 시각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전환기의 『국민문학』이 할 다른 일은 일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데 있었다.

오늘 『고사기(古事記)』나 『만엽』은, 국민고전으로서, 일반 지식인에게까지 그에 대한 교양이 요청되고 있다. 요컨대 이들 고전은 일본의 전통, 즉 일본 민족의 가치관이나 그 사고방식, 표현 양식 등이 가장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저수지로서, 오늘의 국민에게 정신적인 수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 비평가가 오늘 새삼스러이 일본 고전을 잘 모르는 것을 서로 한탄하는 것은 결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략)

『고사기』, 『만엽』, 『고금집』은 모든 국민이 배워야 할 책이다. 비평가는 더하여 모든 제가(諸家)의 가론(歌論)을 배워야 할 것이다. 가론은 뭐니뭐니해도 일본 비평의 중추다.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세는 잠시 접어두고라도, 근세 가학(歌學)의 대략적인 개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마부치, 노리나가, 순카이, 로안, 카게키의 가서(歌書)는 비평가가 먼저 공부해야 할 책이다.¹⁹⁾

19) 최재서, 「偶感錄」, 『轉換期の朝鮮文學』, 앞의 책, 195-6면.

교양 교육 프로그램은 ‘우마니스타, umanista’라는 이탈리아어에서 연유한 것이다. 우마니스타는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 studia humanitatis’ 또는 일반적으로 ‘리버럴 아트, the liberal arts’로 알려진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선생, 학자 또는 학생을 가리킨다. 그런데 교양 과목은 기득권의 연계와 무관하지 않다.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 기획은 언제나 한편으로는 ‘인문인, humanistic man’ 또는 ‘호모 후마누스, Homo Humanus’란 규범적 관념과, 다른 한편으로는 ‘야만인’ 또는 ‘호모 바르바루스, Homo Barbarus’라는 비정상인에 대한 관념 사이의 대립에 의존했다. 그래서 푸코는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의 문화적, 교육적 기획은 ‘이중적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즉, 그 가정에서 배제되는 사람들과 연관된 억압과, 이러한 지식을 승인하는 사람들에게 부가되는 모델 내지 표준과 연관된 억압”이 그것이다.²⁰⁾ 이처럼 교양 교육은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되고 형태 지워진 교육이다. 그리고 교양 교육은 국가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장치로 간주되었다. 국가가 후마니타스의 원형이며 대표적인 형태라는 견해는 그래서 가능하다.

여기서 교양 교육을 문제 삼는 것은 일제 말기 국책문학이 바로 교양 교육의 한 전형이기 때문이다. 인간 생활이 형성되는 도덕 원리들 가운데서도 국가와 그 정부에 관련된 것들, 특히 천황제가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정치가들은 그것을 일반 대중에게 전파하고자 했다. 일반인에게 그 원리가 행복을 담보하는 유일한 법칙임을 믿게 하려 했다. 교양 문학의 변형된 형태인 국책문학은 그것을 위해 기꺼이 전도사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일본어는 표준어, 교양어, 모국어의 자격으로 한반도에서 사용을 강요한다. 릴라 간디는 “식민주의는 단순화시켜 말하

20) 릴라 간디,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이영욱 역, 현실문화연구, 2002.), 67면 재인용.

자면 서구가 비서구의 문화적 가치와 차이를 체계적으로 폐기하거나 부정하려고 시도하는 역사적 과정의 시발을 의미한다”고 했다.²¹⁾

폐기와 부정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무력 사용과 피식민자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인이 식민자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화적 가치와 차이를 스스로 폐기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힐 수 있다.

그렇다면 당대 조선문인들에게 조선어는 어떻게 각인되고 있었는지 살펴 보자.

조선의 말과 글은 그 자체가 조선 문화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민족적 감정이나 정치의식에서 오는 착각이라 생각한다. 물론 조선의 문장은 조선 문화의 전통적 표현 도구였지만 그것이, 그것만이 어떤 시대에도 어떠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도 유일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²²⁾

위의 발언은 최재서가 “조선어가 조선의 문화인에게는 문화의 유산 이라기보다 오히려 고민의 종자”²³⁾라고 말한 지식인의 내적 고민 단계를 넘어 서고 있다. 이런 논리의 전경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조선인은 쉽게 말하면 제가 조선인인 것을 잊어야 한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즉 조선인은 전연 조선인인 것을 잊어야 한다고,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버려야 한다고, 이 속에 진정으로 조선인의 영생의 유일로(唯一路)가 있다고”²⁴⁾

21) 위의 책, 30면.

22) 김용제, 「문학의 진실과 보편성」(『경성일보』, 1939. 7. 27.), 김윤식, 「작가와 말의 관계에 대한 임화의 태도」(『실천문학』2002년 가을호), 327면 재인용.

23) 최재서, 「편집후기」(『국민문학』, 1942. 5·6 합병호)

24) 이광수, 「심적 신체제와 조선 문화의 진로」(『매일신보』, 1940. 9. 4.-12.),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2(평민사, 1995), 112면.

따라서 식민지인이 식민자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반민족적 행위로 간주되기 쉽다. 그렇지만 식민자어를 사용하여 쓴 작품들이 과연 식민자의 정책에 부응하는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결국 작품의 내적 논리, 즉 식민자어를 사용했지만, 그것이 식민자들의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작품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식민자들과의 친연성을 밝힐 수 있다. 일본어의 사용이 곧 친일이라는 논리는 『국민문학』 소재 일본어 소설은 모두 친일작품이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친일문학의 성격을 규명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잣대는 작품의 내적 논리를 따지는 것이다.

식민지인이 식민자어를 사용하여 창작을 할 경우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 이유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간에 그렇다.

어떤 한 인간이 타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모국어를 저버려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그것은 끔찍한 모반행위에 다름 아니며 바로 죄의식을 유발시키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내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타자의 언어는 이미 내게 주어져 있었고, 나는 단지 그것을 받아썼을 뿐이다.²⁵⁾

모반행위니 죄의식이니 하는 용어로 모국어 사용의 당위성을 말하더라도 ‘타자의 언어’ 사용은 불가피했다고 말하는 아체베를 통해 이중어 작가의 미세한 내면 풍경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일제 말기 조선에서 일본어의 위치는 뭐라 반박할 수 없는 굳건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를 표현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작가들이 일본어 사용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면 그것은 운명론적인 논리로

25) 아체베, 『Morning Yet on Creation Day』, 응구기 와 씨옹오,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문학』(이석호 역, 인간사랑, 1999), 32면 재인용.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론적 논리를 비껴가는 방식을 상정할 경우 우리는 김사량을 기억할 수 있다.²⁶⁾

일본어로 써야만 할까? 물론 쓸 수 있는 사람은 쓰는 게 좋다. 그러나 일부러 모든 회생을 치르면서 일본어로 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특별히 적극적인 동기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 문화나 생활·인간을 취해 일본 독자층에게 호소하려는 동기. 또 겸손한 의미로 말하면 나아가서는 조선문화를 동양이나 세계로 넓혀가기 위한 그 중개자로서의 수고를 하고 싶다는 동기. 이 고귀한 동기가 아니라면 모국어로 쓰더라도 읽어 줄 폭넓은 독자를 갖고 있으면서, 그들을 버리고 일부러 쓰기 불편한 일본어로 써야 할 필요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²⁷⁾

이중어 작가의 고뇌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중어 소설은 그래서 정치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분석 뒤에 친일성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Ⅲ. 내선일체와 대동아공영권을 옹호하는 친일작품

1. 내선연애담 혹은 내선결혼담

이효석의 「薊の章, 아자미의 장」(『국민문학』, 1941. 11.)은 내선연애담 소설로 ‘현’과 ‘아자미’의 사랑 이야기가 소재다. 유진오는 이 소설을 “내선이란 것이 특별히 이렇다 할 의미를 지니지 못”하였다고 평한 바 있다.²⁸⁾

26) 김사량의 창작어관에 대해서는 즐고 김사량의 창작어관 연구(한국어문학회, 『어문학』 82집, 2003. 12.) 참고할 것.

27) 김사량, 「朝鮮文學風月錄」, 金史良全集編纂委員會, 『金史良全集 IV』(東京, 河出書房新社, 1973), 11면.

28) 유진오, 「國民文學といふもの」(『국민문학』, 1942. 11.), 8면.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정상적인 조선 사내와 카페 여결인 일본 여인과의 결합이다. 대등한 조건의 남녀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관계로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내선일체에서 벗어나고 있다. 바로 이점을 주목해야 한다.

내선일체 완성에 명운을 건 듯 하지만 실상 내선연애 혹은 내선결혼은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서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비록 이효석이 이 소설에서 내선일체를 조장하는 소설을 그리긴 했지만 그 자신도 알지 못한 내선일체의 허구가 그의 소설에는 숨겨져 있었다. 이런 허구를 이효석이 의도하여 그렸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소설이 삶의 체험에 기초한 것이고, 그것을 형상화하는 작가 또한 당시의 체험에 바탕하여 소설을 썼다면, 이 소설에 그려진 것처럼 내선일체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자미’와 ‘현’의 결혼은 불안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미래는 두 사람 사이의 흔들리는 마음만큼 불투명하다. 조선 남자와 일본 여자의 결혼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다음 인용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단지, 난 슬퍼요. 주위 사람들 여럿이 달려들어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게 쓸쓸해요. 각오는 했지만, 세상의 심보가 나쁘고 차갑네요. 이래가지고 싸워 나갈 수 있을지 확실히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맞서면 되는 거야. 세상은 우리들을 위해서 만만하게 있지는 않으니까.”

“당신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화도 내고 슬퍼지기도 하네요. 웬지 슬픈 결말로 끝날 거 같아서 그것이 참을 수 없어요.”²⁹⁾

이런 불안감을 메워가는 방식은 ‘아자미’가 백번 양보하여 ‘조선적’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현’이 마늘 냄새를 피워도 괜찮다고 말

29) 이효석, 「薊の章」(『국민문학』, 1941. 11.), 121면.

하며, ‘현’과 외출할 때에는 ‘현’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조선 옷을 입는다. 물론 자신의 기호 때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가게와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기모노와 양장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단지 기호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하지만 ‘현’은 조선옷을 입은 아자미를 보면서 “아자미가 기모노를 입었을 때와는 다른 사람, 즉 자기 주위를 오가는 여느 조선 복장의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혈연의 한 사람”³⁰⁾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나 내선일체론에 입각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인이 당위성을 가진다 할지라도, 혼인은 지난한 싸움 뒤에 주어질 수 있음을 이 소설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부모님 앞에서 비수를 뽑아 들고, 허락해 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으름장을 놔다고 해요. 눈에는 가득 눈물을 담고서요. 외아들이 소중한기에 부모님도 항복하고선 두 말 않고 승낙했어요. 저리 약해 보여도, 꽤 대단하죠.”³¹⁾

위의 인용은 ‘미도리’와 조선인 남자가 결혼 승낙을 어떻게 받아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결말에서 ‘현’과 ‘아자미’의 결혼도 많은 무리가 따르겠지만 이루어질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목숨을 담보로 한 연극 뒤에 얻어낸 결혼이라고 해서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다만, 내선일체를 이루는 과정에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문제 삼고 싶다. 일본이 주장하던, 그래서 조선에서도 그것을 목소리 높여 외치던 내선일체는 생각만큼 간단한 성질의 것이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논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피의 내면의식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내선일체는 메아리가 될 가능성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을 이효석이 의도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효석은

30) 위의 소설, 122면.

31) 위의 소설, 127면.

그의 소설에서 내선일체의 힘겨운 과정과 아름다운 결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행간 속에 스며있는 의미를 찾아낸다면, 내선일체는 말처럼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내선일체가 “서로 손을 잡는다든가, 형태를 융합한다든가라는 그런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형태도, 마음도, 피도 육체도 모두 일체가 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두 민족이 “무차별 평등에 도달하는 것”³²⁾이라고 할 때, ‘피의 하나’는 결혼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선일체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에서조차 내선일체에 의하여 “양 민족의 융화 결합을 기대하는 것은 이론으로서는 곤란하지 않지만 실제문제로서는 먼 장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면서 내선일체에 대해 회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³³⁾ 이런 객관적인 판단이 소설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靑木洪(홍종우)의 「妻の故郷, 아내의 고향」(『국민문학』, 1942. 4.)도 내선결혼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압도하는 것은 다음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때는 바로 일체결합으로 동아의 건설을 목표로 약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을 가진 직업인입니다. 이 기술로 나는 마누라와 아이를 부양해 갈 것이니, 아버님도 안심하십시오. 어떻게 모두를 이렇게 알게 되었는지, 전 참으로 기쁩니다. 자, 아버님 건배합시다.³⁴⁾

내선일체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소설이지만 초점은 이혼녀와 그녀의 4살 난 딸아이를 받아들여 결혼한 조선인 남자에게 맞춰져 있

32) 君島和彦, 「조선에 있어서의 전쟁동원체제의 전개 과정」, 최원규 편, 『일제말기의 파시즘과 한국사회』(청아출판사, 1989), 165쪽 재인용.

33) 조선총독부, 『朝鮮人の人口問題』(1939.), 113면, 김재용 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역락, 2003.), 119면 재인용.

34) 靑木洪, 「妻の故郷」(『국민문학』, 1942.4.), 190면.

다.

주인공 ‘아라이’는 일본을 마음으로 동경하고 동경(東京)에서 아이가 딸린 이혼녀와 결혼하여 그가 꾸는 꿈을 이룬다. 마음으로 동화하고, 그것이 현실의 삶으로 뒷받침됨으로써 완전한 내선일체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인 것이다.

‘아라이’는 일본인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그는 일본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는 일본과 결혼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그는 행복을 보장받는다. 일종의 엑조시티즘이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갖고 그의 마음 속에 자리했으며, 조선에서의 고생스러운 삶은 일본에서의 삶으로 충분히 보상받아 성공한 내선일체의 한 표상으로 자리잡는다.

그는 사람보다 일본의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자연의 일부로 일본인 아내를 맞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내선일체의 완결은 ‘내선일체의 결합으로 동아의 아이’³⁵⁾를 낳는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선결혼의 형태다. 이호석의 아자미의 장에서도 그랬듯이 일본인 아내는 아이가 하나 딸린 과부, 비정상적인 형태의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선연애, 혹은 내선결혼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즉 내선일체는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 차별의 정책임을 소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지식인의 껍질 벗기, 그리고 총량한 신민 되기

이석훈의 「靜かな嵐, 고요한 폭풍」은 총 3부(2부 : 『국민문학』, 1942. 6, 3부 : 『녹기』(1942. 11.)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박태민’의 그후 행적에 대해서는 「善靈」(『국민문학』, 1944. 5.)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고요한 폭풍과 선령은 연작 형태를 띠고 있는 소설임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은 ‘박태민’이라는 주인공을 내세워, 국어교육→징병→진정한

35) 위의 소설, 186면.

일본인 되기라는 일련의 과정이 당대 국민문학이 지향해가야 할 도정이며, 문인들은 그런 과정의 당위성을 전파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전형적인 친일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제는 다음 인용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나는 이상을 가지고 싶다. 밝은 행복을 얻고 싶다. 그리고 모든 동포가 그 밝은 행복을 맛보길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커다란 꿈을 가지자. 우리의 행복의 피안에 일본이라는 광명을 찾아 민족의 새로운 신화를 가지자. 이 신화야말로 우리들의 새로운 창세기이다. 그럼으로써 동포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³⁶⁾

일본을 매개로 한 꿈을 가져야 동포들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박태민’의 이런 생각은 그렇게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니다. 서서히 일본인화 되어 가기 위해 내적 고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작가지만 지금 순문학자로서 상아탑에 숨어 지낼 수’만 없는 현실에서 ‘민중을 격려하기 위한 비약적인 논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치성’을 띠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하는 ‘박태민’의 말에는 당대 지식인의 고통스러운 고민이 묻어 있다.

시대의 격렬히 요동치는 흐름이 일체의 감상이나 편견을 물리치고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있었다. 어지러운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작가로서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내지 못해 고뇌하고 있었다. (중략) 이 땅에서 작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풍의 시대를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그저 무의식적으로 생활해서는 안 된다. 의식적으로 시대를 호흡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소승적인 민족적 입장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보다 높은 대승적 지성과 예지가 필요하다. 박태민은 깊은 회의 속에서 방황했다. 의식은 분열되고, 다뤄서 결말에 도달할 수 없었다.³⁷⁾

36) 이석훈, 「夜」(『국민문학』, 1942. 6.), 195면.

37) 이석훈, 「靜かな嵐」(『국민문학』, 1941. 11.), 157-8면.

이러한 내적 고민은 비단 ‘박태민’의 것만은 아니다. 당대 문인들에게 공통된 고민이었다. 문인들은 이런 내적 고민 단계를 지나 서서히 천황의 충실한 신민으로 물들어 갔다.

「善靈」(『국민문학』, 1944. 5.)에서도 여전히 ‘박태민’은 배타주의의 동굴 속에 헤매고 있는 인물이라고 타박을 당한다. 스스로도 그런 류의 인물이 아닐까 자책한다. 그런 자책이 일자 박태민은 거듭나기 위해 신궁 참배 등을 하면서 자신의 느슨한 마음을 옥죄는다. 그리고 보도연습반에 들어가 목숨 바쳐 싸우는 전쟁 소식을 접하면서 직업 봉공의 자세를 가다듬는다.

그런데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이태준을 모델로 한 소설이다. 소설 속에서 ‘박태민’은 『구원의 여상』이라는 장편을 신문에 연재하고 있다. 그것은 곧 이태준의 동명소설이다.

이석훈은 당대 대표적인 소설가인 이태준을 모델로 하여 문인들이 어떻게 의식의 변환을 이루어 시국에 부응하는 인물로 변해갔나를 그려주고 있는 셈이다. 물론 ‘박태민’을 이태준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이 소설은 당대 ‘박태민’류의 우유부단한 문사들에게 시국에 적극적으로 발맞춰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셈이다.

최재서의 「보도연습반」(『국민문학』, 1943. 7.)은 신문, 잡지, 미술, 사진에 종사하는 오십여 명의 보도반원이 공격정신으로 충만히 무장된 보도전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특히 잡지 편집인인 ‘송영수’가 어떻게 군인정신으로 무장되어 가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급변하는 시국에 부응하여 뭔가를 해야 하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늠하지 못하는 주인공 ‘송영수’는 보도 연습에 참가하는 것이 언젠가는 펜을 들고 전선으로 가겠다고 스스로 맹세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차 멸사봉공의 의지로 무장되어 간다.

하지만 그런 맹세가 처음부터 확고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신념은

여전히 입 속에서만 맴돌 뿐 마음에서 온전히 우리난 것은 아니다. 천황의 신민이 되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런 일면은 보도반원들이 군가를 부르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송영수는 선뜻 따라 부르지 못하고 주저한다. 송영수의 내면의식에 자리하고 있는 일말의 불안감이 그로 하여금 선뜻 군가를 따라부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호랑이 같은 소리’로 ‘세워라 영광의 일장기’를 목놓아 외치며 일본인 보도연습반원들과 일체감을 느낀다.

이상할 정도였다. 노래하던 중에 송영수는 피로도, 허기짐도, 불만도, 어깨의 무게도 잊고 정말 즐거운 기분으로 행군할 수 있었다. 이미 그는 혼자자가 아니었다. 하나의 의사로 움직이는 전체 속의 하나였다. 그의 한 발 한 발은 전체의 한 발 한 발과 완전히 일치했다. 피로를 느끼고, 공복감을 느끼고 불만에 빠져 있던 그 자신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전체와 함께 노래하고,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그가 거기에 있었다.³⁸⁾

이런 일체감은 그리 하여금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다. 아침마다 하는 동방요배와 칩유의 제창이 이젠 아무 거리낌 없이 그의 정신세계 속에 녹아든 의식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조선의 농촌 풍경을 보면서 그는 조선이 일본과 하나임을 자각한다. 따라서 조선인이 일본을 도와 아시아를 구하고 세계를 파탄에서 건져내는 일은 신성한 임무로 승화된다.

저 산과 같이 장구한 대일본민족, 그 유구한 생명력에서 더욱 비약하려고 꿈틀대는 젊은 일본. 그렇다, 일본은 지금 저 초목처럼 생생하다. 그리고 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비약만이 동아의 십 억 인구를, 아니 세계의 파탄을 구할 수 있다. 조선의 이천 칠백만은 내지동포 칠천만을 도와서 이 신성한 일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³⁹⁾

38) 최재서, 「보도연습반」(『국민문학』, 1943. 7.), 32면.

송영수의 이런 생각은 모든 문인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시대정신이다. 그리고 송영수의 보도연습반 체험은 당대 문인들 모두가 공유해야 할 체험이기도 하다.

송영수는 훈련을 끝내고 평양 병영으로 돌아와서 조선인 지원병을 소개받는다. ‘빛나는 지원병들’을 보면서 송영수는 징병제 실시를 ‘구세주의 출현’으로 비유한다. 그들을 보면서 “젊은 조선의 모습이 이곳에 있다”고 깨달으면서, 그런 희망 섞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준 ‘국인에 대한 감사 보은’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香山光郎의 「加川教長」(『국민문학』, 1943. 10.)은 조그만 시골의 신설 공립중학교 교장인 ‘가가와’ 교장의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시국에 대응하는 적절한 교육 방식이나 교육관 등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앞서 두 작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주인공을 일본인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식인이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그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다른 두 작품과 공통된 점이 있다.

교사를 천직으로 생각하는 ‘가가와’ 교장은 늘 교장으로서의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나는 철부지고, 처세술도 서투르고, 처에게는 든든하지 못한 남편이겠지? 딸에게도 칠칠치 못한 아비인지도 모른다. 결코 수완이 있는 교장도 아니다. 나는 자신이 교장 재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교사는 오래 했다. 교사 일을 좋아한다. 아이들이 그저 귀엽다. 그들을 가르치고 싶다. 이 것뿐이다. 누구건 적당한 교장이 오면 나는 평교사로 일할 생각이다. 그렇지만 나는 당장 교장을 그만두려는 생각은 없다. 나는 서툴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생각이다. K중학교가 제대로 설 때까지 스스로 자리를 그만두는 비겁자는 아니다.⁴⁰⁾

39) 위의 소설, 33-34면.

40) 香山光郎, 「加川教長」(『국민문학』, 1943. 10.), 10면.

교육가로서의 사명감에 투철한 ‘가가와’ 교장은, 부족한 학교 건물과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돈 많은 사람으로 후원회 일부를 교체하여, 재정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다. 댓가를 바라지 않는 ‘의인’형에 ‘가가와’는 교육적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이런 가치관이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 길들여진, 자기우월의식에 연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가와의 지론은 세상을 썩게 하는 것은 약삭빠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인이 그런데, 조선 아이 중에는 너무나도 약삭빨라 보이는 녀석이 많다. 가가와는 어리숙하기를 바랬다. 東郷도 山本도 영리한 인간은 아니다. 외려 우직한 인간이다. 우직하기 때문에 집도 몸도 잇고 바다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다—가가와는 이렇게 믿고 있다. 전회장도 우직해서 좋아했다.⁴¹⁾

그의 어리숙함이란 세상에 대해 타협할 줄 모르는 교육관에 연유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게 될 때 ‘내 것’ 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차별하게 된다. 이것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제국주의 논리와 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가가와’가 교육사업을 신성시 하면서 그것을 ‘국가사업’으로 간주하고, 교육을 위해 기부하는 돈을 ‘국방헌금’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학교정신이 오염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이 정신을 지키는 것이 교장의 책무’로 여기기 때문이다. ‘가가와’의 이런 가치관은 전쟁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에서 더 선명해진다.

그는 대동아전쟁에 대해 “지금 일본은 올바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할 때입니다.”⁴²⁾라고 단언한다. 교육을

41) 위의 소설, 15면.

통한 국가정신의 무장이라는 것은 식민정신의 내면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한 정치와 전쟁의 심미화에 지나지 않는다. 문학은 그것을 위해 한낱 매개 역할만 하면 그만인 것이다.

최병일의 「本音, 본심」(『국민문학』, 1943. 11)은 ‘청년대 지도원’인 ‘나’가 동경의 전문대학을 나와 신문기자로 일하다 폐간된 뒤, 아무 일도 없이 소일하고 있는 주인공 ‘國本東燮’이 ‘본심’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관찰하여 그린 소설이다. 전쟁기에 주인공의 ‘불순하고, 신념이 없었던’ 마음을 청산하기 위해 방황하는 내적 고민과 극복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기백이 없는 당시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용왕매진(勇往邁進)’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주인공 ‘國本東燮’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늘면서, 이혼과 연애 문제로 파국에 휩싸여 허우적대고 있는 가운데, ‘청년대’의 훈련에 참가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나’의 눈밖에 벗어나 ‘나’에게 따귀를 맞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 관한 놀라운 소식이 들린다. 그것은 ‘國本’이 징용을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축하’해주러 온 청년대 대원들에게 ‘국본’은 자랑스럽게 자신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저, 國本東燮입니다. 이번에 T에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께 한 마디 소감을 말하려 합니다. 실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아직 마음의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로 기분이 개운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분으로는 마음의 정리가 이미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는 사생활은 물론 청년대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장의 영장으로 모든 것이 청산된 기분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이 없는 생활에 쫓겨 저는 해결을 찾으려고 암중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슴이 열린 듯한 느낌입니다. 뭐라고 할까, 눈앞이 환하게 밝아진 기분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려 합니다. 전혀 내실이 없는 과거였으니까요.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열심히 해볼 작정입니다. (중략)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사람을 부수어 새로 고칠 생각으로

42) 위의 소설, 18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⁴³⁾

징용이라는 군국의 부름에 호응함으로써 지식인의 허위를 일거에 제거한 ‘國本’의 행위는 당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우유부단한 지식인에게 썰기를 막고 있다. 일본주의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한 지식인의 행태를 이 소설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국민의 이름으로 호명되는 여성의 ‘국민화 프로젝트’

정인택의 「清涼里界限, 청량리 부근」(『국민문학』, 1941. 11.)은 국민방공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아내와 청량리 부근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애쓰는 ‘나’ 사이의 미묘한 시대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주로 청량사 기슭의 조그만 분지에 폐옥처럼 자리한 지역의 유일한 초등교육기관인 인문학원과 아이들의 일상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기실 청량리 애국반 제X구 제X반 반장인 아내가 부지런히 집회에 나가기도 하고, 호별 방문을 하기도 하고, ‘국민총력’⁴⁴⁾과 ‘정보’ 등의 잡지를 열심히 읽으면서 시국의 동향을 파악하여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3) 최병일, 「本音」(『국민문학』, 1943. 11.), 110-111면.

44)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만든 기관지. 국민총력조선연맹은(이하 총력연맹)은 이른바 총력운동의 대종이었다. 중일전쟁이 장기화하고, 미·일 관계마저 틈이 벌어지자, 일제는 종래의 전시체제를 한층 강한 결전체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도국방국가 건설을 외치기 시작했다. 고도국방국가 건설이란 첫째, 사상통일-일본정신의 양양과 내선일체의 완성, 둘째, 국민총훈련-지역봉공 및 생활의 신체제 확립, 셋째, 생산력확충-전시경제체제 추진과 증산이 그 목표이다. 이러한 체제의 완성을 위해서 1940년 10월 16일, 일제는 정동연맹을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이를 총력연맹으로 재출발 시켰다.

청량리에서는 회람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집이 많기 때문이다. 동네 회의의 지시 사항은 물론 모든 것을 아내가 입으로 설명하여 전달하였다. 가정의 소방훈련을 주로 하는 방공훈련이 다가와 지시사항도 많아졌으며, 방공 자재의 준비 하나만도 일일이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아내 혼자 힘으로는 벅찬 일이었다.

상대가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물질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국민방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일의 진행을 어렵게 했다. 아내는 가는 곳마다 불평을 들어야 했다.

시국을 설명하기도 하고 국민방공의 필요성을 가르치기도 하고 실제로 지도를 하기도 하고……한 집 한 집 이를 되풀이하여 몇 십 호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내의 표현대로 ‘녹초’가 되는 것이었다.⁴⁵⁾

이러한 일을 아내는 ‘정말 아내는 보람있는 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국신민으로서의 여성의 위치 문제다. “조선인이 조선인으로 남은 것 자체가, 혹은 조선인을 조선인답게 하는 기층문화 그 자체가, 혹은 민중의 일상생활 영위 그 자체가 황민화정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⁴⁶⁾인 상황에서 무식한 여성은 정책 수행상의 장애가 될 뿐이다.

따라서 통치 책략상 <무식한 사람>들을 교화할 필요가 있었다. 여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제는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일으켜 10호를 한 조로 하는 애국반을 조성하여 여성을 대상에 포함시킨다. 1940년 국민총력조선연맹이 만들어지고 12월에는 각도에 하부 연맹의 부인부 설치를 명령한다. 다음 해에는 부인지도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인층을 대상으로 더욱더 활발한 총력운동을 전개하게 된다.⁴⁷⁾

45) 정인택, 「清涼里界限」(『국민문학』, 1941. 11.), 130면.

46) 宮田節子, 앞의 책, 96면.

47)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가와 가오루, 「총력전 아래의 조선 여성」(김미란 역, 『실천문학』 2002년 가을호)을 참조할 것.

이 소설에 등장하는 부인회는 대평양전쟁이 발발하면 부인의 제일선 진출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개로(皆勞), 저축, 절약을 기본으로 하는 전시생활수칙의 실천을 전개하도록 한다.⁴⁸⁾ 그리고 징병제 실시가 발표되면 아들이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으려는 어머니와 아내의 저항 앞에 “황민화정책은 ‘황국의 어머니 없이 황국의 건병(健兵) 없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반도의 부녀자에 대한 교육’을 재편·강화하고 ‘모성애의 나아갈 방향’으로까지 확대”⁴⁹⁾하게 된다.

따라서 이 소설은 대동아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만들어 독려하던 부인회의 활동을 성실하게 추종한 소설임을 알 수 있다.

최정희의 『野菊抄』(『국민문학』, 1942. 11.)는 11세 된 ‘승일’이가 홀어머니인 ‘나’와 함께 지원병훈련소를 견학한 이야기를 그린 서간체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제는 ‘승일’과 그의 어머니가 지원병훈련소를 찾아가는 길에 ‘승일’만한 아이가 풀을 베면서 부르는 ‘어른이 되면 우리들도’라는 노래에서 잘 드러난다.

전국에서 울려퍼지는
환호성에 뛰노는 가슴
어른이 되면 우리들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
훌륭한 공을 세울 테야

존귀한 군기 받아들고서
이어받은 역사의 긍지
어른이 되면 우리들도
아시아를 세우는 군인이 되어

48) 위의 글, 293면.

49) 宮田節子, 앞의 책, 76면.

세계에 명예 높일 테야⁵⁰⁾

어린이들이 장차 커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 ‘아시아를 지키는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아이들의 노랫가락에 총력전의 진면목이 스며 있다.

이런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는 이 소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다. 하나는 군인정신과 관련된 것이다. 주인공 ‘나’가 겨우 11세인 ‘승일’을 데리고 훈련소를 찾아 가는 이유는 분명하다. “군인과는 연이 멀어서 군인 생활을 도무지 알 수 없고, 군인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군인정신도 몰라” ‘훌륭한 제국군인을 만들려고 하는 저’나, ‘훌륭한 군인이 되려고 하는 승일’ 모두에게 그것은 큰 결함이다. 따라서 그들은 군인정신을 배우고 그것으로 무장하기 위해 훈련소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들에게 군인정신이 없는 것은 곧 ‘혼이 없는 인간’과 진배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총후부인들의 정신 무장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하라다’ 교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희들이 오 년간 이 지원병 훈련에 힘쓰고 있는 동안에 가장 강하게 느꼈던 것은, 반도의 모친들이 빨리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지원병이 입소하면, 곧 그 가정 사정이라든지 부모 형제의 찬부등을 조사합니다만, 언제나 모친 쪽의 반대가 많습니다. (중략) 아무래도 무지한 모친이란 눈앞의 맹목적인 애정만 알지, 크고 빛나는 미래 같은 것은 조금도 의식하지 못해서……결국 이런 식의 모친은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어머니의 의식이 확고한 자는 성격도 굉장히 좋고, 입영하고 나서도 상관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중략)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반도의 청년이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어머니들의 힘이 크다는 겁니다. 역사상 위대한 위인들을 보더라도, 그 배후에는 반드시 어머니의 위대한 힘이 숨어 있는 거니까……”⁵¹⁾

50) 최정희, 「野菊抄」(『국민문학』, 1942. 11.), 138면.

총력전 아래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던 역할이 몇 가지 있었다. ① 어머니, ② 주부·아내, ③ 노동력, ④ 창부나 군위안부가 그것이다.⁵²⁾ 어머니의 역할은 징병과 징용에 반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발 대상으로서의 어머니와, ‘아이를 낳는’ 어머니로 나눌 수 있다.⁵³⁾ 이 소설은 전자와 깊은 관련이 있는 소설이다. 일제는 아들을 기쁜 마음으로 전장과 노동현장에 보내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는데⁵⁴⁾, 이 소설은 거기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卞東琳, 「淨魂」(『국민문학』, 1942. 12.)은 20여년 교회의 주일학교 형태로 운영되던 학교를 ‘인색한 자본가와 완고한 교회사람들’의 난관을 극복하고 소학교로 승격시킨 구월산 자락의 광성소학교에 ‘오희’가 부임함으로써 이야기는 시작되는 서간체 형식의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제는 다음 인용과 관련이 있다.

저는 자주 집앞에서 승용의 무리들과 만납니다. 그들은 모두 열 대 여섯, 일곱의 소년입니다. 그리고 소학교의 교육밖에 받지 않았습시다. 이 쪽에서는 그 이상의 교육시설도 없고 그들의 커가던 지식욕은 그대로 닫히고 말며, 더구나 특별한 방편을 향해 발전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불량성을 띠기도 하므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감당할 수 없는 무리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략)

五姬는 아이들과 생활하는 동안 점점 자신이 어머니가 되어 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에게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지었다. 직원들, 즉 순과 서 청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박과 수석과 교장에 대해서까지도, 어딘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신의 위무를 필요로 하고 구하고 있는 듯이 여겨졌던 것이다.⁵⁵⁾

51) 위의 소설, 140면.

52) 가와 가오루, 앞의 글, 305면.

53) 위의 글, 305면.

54) 자세한 내용은 姜德相의 『朝鮮人學徒出陣』(岩波書店, 1997.) 참조할 것.

55) 변동림, 「淨魂」(『국민문학』, 1942. 12.), 151면.

총후에서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대목이다. 특히 ‘강오희’가 소학교 생도들을 보고 “모친이 자식을 대하듯 끝없는 애정을 느끼”면서 “그것이 세간에서 말하는 사제의 애정인가하고 그녀는 혼자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⁵⁶⁾이 드는 것은 여성의 국민화 프로젝트의 좋은 본보기이다.

국가 통제 아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私’를 희생하고 국가에 봉공하는 멸사봉공의 시대, 즉 총력전의 시대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후방에서는 현모양처 혹은 그에 준하는 여성상이나 근로 봉사로 국가에 헌신하는 여성상을 요구한다. 바로 그런 활동상을 그린 것, 혹은 그러한 생활을 추진하기 위해 씌어진 소설이 후방소설⁵⁷⁾인데, 이 소설은 후방소설의 좋은 본보기다.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쟁시기에 여성을 어머니로 규정하여 일본 제국주의 병사의 생산과 양육이라는 어머니상을 정립하는 것은 어쩌면 불합리한 개념 규정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가족을 국가라는 공동체의 척도로 삼았기 때문이다.⁵⁸⁾ 즉, 천황제라는 국가 권력이 가족과 개인의 삶을 공적 영역으로 재구성해 내기 위해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을 일러 ‘가족심’이라 부른다. 그럼으로 천황제의 국가주의 이념을 어머니상에 투영한 것이 ‘가족심’이고⁵⁹⁾, 그것은 여성의 ‘국민화 프로젝트’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위의 소설에서 ‘강오희’가 굳이 어머니상을 강조하는 것도 이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작품이 왜 친일작품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

56) 위의 소설, 152면.

57) 호테이 토시히로, 「일제 말기 일본어 소설 연구」(서울대 석사 논문, 1996.), 85면.

58) 이선옥, 「평등에 대한 유혹」(『실천문학』 2002년 가을호), 260면.

59) 우에노 치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이선이 역, 박종철출판사, 1999.), 47면.

럼 어머니상을 강조한 전형적인 작품에 조용만의 「森君夫妻と僕と, 모리부처와 나」(『국민문학』, 1942. 12.)가 있다.

조용만의 「모리부처와 나」는 남편인 ‘모리’가 출정한 후 굳건히 살아가는 그의 부인 ‘히사꼬’와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충일한 그의 아들 ‘이찌로’의 충후정신을 그린 이야기다.

출정한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느냐는 ‘나’의 물음에 모리의 아들 ‘이찌로’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는데요. 공을 세우고 돌아올 때까지 난 보고 싶지 않아요!”⁶⁰⁾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전쟁에 임하는 아들의 충후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찌로’의 충후정신은 ‘모리’의 내선일체 의식과 맞물려 있어 당대 조선인에게 자각을 일깨운다. ‘모리’는 “조선에서 공부한 이상, 조선의 제자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함으로써, 그는 본국에서의 편안한 길 대신에 애써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히사꼬’는 모리가 출정하고 난 뒤 신문사에서 주는 봉급으로 생활을 연명했으나 신문사가 망하자 4개월 동안 세 살짜리 여자 아이를 업고 ‘이찌로’와 집 열쇠를 ‘나’의 집에 맡기고 양재학원을 다닌다. 남편이 출정한 후 마을에서 약간의 생활비를 보조해 주려 하지만 스스로 일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출정 나간 남편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면서 거절해 버린다. ‘히사꼬’의 이런 어머니 혹은 아내상은 모리를 떠나보내는 그녀의 의연한 모습을 본 ‘나’의 느낌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무사도의 나라의 여인이 출정하는 남편을 배웅하는 장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 풍경인가? 황군이 연전연승을 계속하는 것은 총 뒤에 이처럼 훌륭한 아내와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나는 거의 찬탄의 눈으로 히사꼬를 다시 봤다.⁶¹⁾

60) 조용만, 「森君夫妻と僕と」(『국민문학』, 1942. 12.), 126면.

61) 위의 소설, 132면.

이런 의연한 모습은 ‘모리’의 전사 통지서를 받아든 ‘히사꼬’의 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리고 아무 영문도 모르는 그의 아들 ‘이찌로’의 노래 소리에 묻혀 ‘모리’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행위로 승화된다. 나아가 대동아전쟁은, 대동아공영권은 다음의 노래가락에 실려 그 당위성을 획득해가고 있는 것이다.

어깨를 걸고 형과
오늘도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은
병사님들의 덕분입니다.
나라를 위해, 나라를 위해
전사한 병사님 덕분입니다.⁶²⁾

4. 오족협화론과 만주 개척

정인택의 「濃霧」(『국민문학』, 1942. 11.)는 간도 개척민과 비적토벌대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운전수인 주인공 ‘千田’은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농사꾼이 되라는 아버지의 말이 못마땅해 집을 뛰쳐나와 트럭 차고에서 3년간 일한 뒤 운전 면허증을 얻어 운전수가 된다. 지나사변이 일어나자 그는 바로 북쪽 전쟁터로 파견된다. 승전을 계속하는 황군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그는 부대 중에서 ‘용맹운전수’로 이름을 날린다. 그는 언제나 트럭 행렬의 맨 앞에 서서 탄환의 비를 겁내지 않았다. 그런데 비적을 토벌하러 갔다가 산서성의 대초원을 눈앞에 두고 부상을 입어 후송된 뒤 두 달 정도 요양을 하여 회복, 종군을 청했으나 받

62) 위의 소설, 138면. 이 외에 김사영의 「聖顔」(『국민문학』, 1943. 5.), 「幸不幸」(『국민문학』, 1943. 11.), 정인택, 「각서」(『국민문학』, 1944. 7.)에서도 ‘어머니상’을 엿볼 수 있다.

아들여지지 않는다. 대신 군과 만척(만주척식공사)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얻어 안도로 배치되어 오는데 여기서 만주개척민의 일원으로 만주에 온 가족의 이름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짐으로써 그는 더더욱 비적을 토벌하는데 용감해질 수 있었다.

일제는 1932년 만주국을 건설한다. 오족이 하나임을 입증하기 위해 건설된 만주국은 국토 개척과 왕도낙토 건설을 지상의 과제로 내걸었다. 만주 개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책문학의 하나로 농민문학, 생산문학, 대륙개척문학을 강조한다.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38년 일제는 <대륙개척간화회>를 결성하고 그들의 만주정책을 문학적으로 뒷받침하려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대로 한국의 문학계에도 파급되어 1938년을 전후하여 이기영을 비롯하여 이태준, 채만식, 이무영, 이석훈, 정비석, 정인택 등이 만주시찰단의 일원으로 만주를 시찰하고 이를 작품화하였다.

이 작품도 그 예 중 하나다. 1932년 일제가 오족(일본·조선·만주·몽골·중국)협화라는 건국이념을 앞세워 만주국을 건설한 뒤, 만주로의 개척이민은 본격화된다. 당시 조선인에게 만주는 ‘大地와 陽光과 아지랑이와 농부-모두가 평화 그것’인 공간으로 선전되고 있었다.⁶³⁾ 북지에만 약 4만에 달하는 만주개척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⁶⁴⁾는 사실은 당시 조선인에게 만주가 어떤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다. ‘千田’이 비적들과의 의연한 전투 뒤에는 “만주에는 얼마든지 넓고 비옥한 토지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개척하고 경작해서” 가족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꿈이 있었다. ‘千田’에게 만주는 황량한 벌판이 아니고 꿈을 실현시켜줄 희망의 공간인 것이다.

임학수는 당시에 만주에 살던 조선인은 네 부류로 나누었다.

63) 임학수, 「북지건문록」(『문장』, 1939. 7.), 165면.

64) 위의 글, 166면.

착실한 직업을 가진 이와 군이나 관현의 지도하에서 용감무비한 활동을 하는 이와 위에 말한 금제품 밀매자와 여자를 더붙고 가서 하는 요리점 등속. 전자의 들은 각계에서도 칭찬하고 있으나 극소수입니다.⁶⁵⁾

위의 분류대로 하면 ‘千田’은 ‘군이나 관현의 지도하에서 용감무비한 활동을 하는’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다. 이 말은 당시 만주에 거주 하던 조선인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도 된다. 따라서 이 소설은 만주 개척을 독려했던 일제의 비위에 맞추려고 극소수의 영웅적인 조선인의 얘기를 그렸다고 볼 수 있다.

이무영의 「토룡」(『국민문학』, 1943. 4.)은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 끝에 정착에 성공한 만주 개척민들 이야기다. 특히 젊은이들의 결혼 문제(신부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와 개척부락을 떠나 도회로 가려는 젊은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춘보’는 땅이 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땅의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릴 줄 알 아는 인물이다. 소설을 보면 고향에서 경작지를 마련해두고 개척지를 탈출해오라고 연락이 오지만 단호히 거절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춘보’가 거절하는 이유는 다음 인용에 잘 나타나 있다.

지금 자신이 그 八斗落을 받게 되면, 어느 한 농사꾼은 자신을 대신해서 간도로 흘러오든지, 내지의 석탄광에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같은 일이다, 지금 순순하게 돌아가서는 개척민으로서의 의지가 너무 없다. 그렇게 의지가 없어서는 백오십 만이 되는 이주민들의 면목이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다.

「애, 삼룡아, 생각해 보렴. 만주에 와 있는 이주민이 백 오십만 명이나 된다고 하지 않더냐. 그렇게 많은 농사꾼이 만주에 왔으니, 고향의 농사꾼은 훨씬 편해졌지. 그런데 이번에 우르르 몰려 가봐라. 고향의 농사꾼들에

65) 위의 글, 167면.

게 폐를 끼치는 일인 게야. 나는 냉해를 당했지만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 그런 일, 나는 죽어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고향의 동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진 않다.»⁶⁶⁾

이런 심성의 ‘춘보’는 개척지에서 비적들과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면서도 무사한 것, 그리고 경작지도, 작물도 무사한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 감사의 신념 때문에 그는 개척지를 떠나지 못한다.

과거 7년간 그는 몇 번인가의 가뭄도 냉해도 당했지만, 마치 비적을 만나 자신의 몸과 자신의 아이들의 무사함을 감사했을 때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온 땅에 끝없는 애정을 느꼈다. 그 애정이 또 다른 애정을 만들고, 어느 사이인가 그것은 하나의 신념으로 변하고 만 것이다.⁶⁷⁾

그러나 ‘춘보’의 아들인 ‘삼룡’과 딸인 ‘후분’과 ‘선분’은 기회만 있으면 개척지를 떠나 큰 마을로 가려 한다. 땅에 대한 ‘춘보’류의 보편적 심리와 땅을 떠나려 하는 젊은 세대의 보편적 심리가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결국 ‘춘보’가 양보하는 것은 의미 있는 행위다.

그런데 ‘춘보’의 땅에 대한 보편심리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일제의 만주개발정책을 놓쳐서는 안 된다. ‘춘보’의 땅에 대한 애착심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해도,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춘보’의 말 속에 스며있는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들여다 볼 때 이 소설의 의미는 더 분명해 진다.

北京 東堂子胡同 총독부출장소내의 某事務官 談

—북지의 조선인은 대단히 평판이 나쁘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개괄적으로는 원인이 둘로 나뉘는데, 一은 조선인의 직업이 모히, 코카인의 금제

66) 이무영, 「土龍」(『국민문학』, 1943. 4.), 77-78면.

67) 위의 소설, 81-2면.

품을 밀매하는 것. 그는 선량한 중국인에게 사기, 공갈 등 불량한 행위를 하는 것. 북지 제주 약 사만명인데 대개는 만주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로, 구할 오피는 표면 잡화점 등의 간판을 걸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태반이 밀매자이다. 사실 중국인은 모리를 절대로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장소에 따라서는 그들이 이 밀매자들을 보호하여 주기도 한다. (중략)

이번 성전의 목적하는 바는 인도적으로 그들을 지도하자는 것이요, 모히를 팔아 자멸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연 취체의 대상은 조선인이 된다. 이의 대책으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업을 전향시키는 것이다. 그레경한선 연선에다 방금 농장을 준비하고, 거기 모여 농작을 하게 하고 자본을 융통하여 줄 계획이다.⁶⁸⁾

일본이 정책적으로 만주개척을 시행하지만 실상 만주는 조선인에게 그리 만만한 공간이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야만 하는 고난의 땅이었다. 이 소설에서 젊은이들이 자꾸만 개척지를 떠나려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삶에 대한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설이나 여타 만주기행문들은 그런 현실적 삶과는 유리된 희망의 공간으로 만주를 그리고 있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만큼 만주는 정착하기에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이 소설에도 위의 인용에서처럼 만주개척민들에게 ‘농장’과 ‘자본’을 마련해주는 ‘만척’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소설에서의 계약조건을 살펴 보더라도 개척민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노예의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이 개척지를 떠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로 결말로 맺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말구조다. 왜냐하면 개척지를 떠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앞서 살펴본 정인택의 농무와는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친일의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소설의 주인공 ‘춘보’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만주개척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가지

68) 임학수, 앞의 글, 166면.

고 있으며, 그런 신뢰가 땅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나서, 누구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만주는 <꿈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전망은 일제의 조선인 만주 이주 장려 계획을 문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의 이주를 통해 1) 식민지 조선의 과잉 인구와 경지 부족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2) 일본으로의 무정견한 진출로 인한 노동에서의 노동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3) 재만 한인의 성공은 식민지 조선에서 ‘사상상의 지극히 명량한 시사’를 줄 뿐만 아니라 내선융화의 기초를 배양할 수 있고, 4) 한인을 ‘잘 소화하고 포용하면 전 아세아 민족은 渴仰과 신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등 다양한 정치, 경제적 효과를 노리고 있었다.⁶⁹⁾ 이 소설은 이런 일제의 만주이민정책이나 만주개척정책을 ‘문장보국’하고 있는 셈이다.

이석훈의 「北の旅, 북으로의 여행」(『국민문학』, 1943. 6.)은 간도지방 시찰을 끝낸 뒤 북만의 이민부락에 살고 있는 삼촌택을 헤어진 지 20여년 만에 방문한 ‘철(태호)’의 소회를 기록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만주국 건설이 조선인에게 어떤 희망을 갖게 해주었는지를 이민부락 촌장인 ‘철’의 숙부를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

“이 놈이 태어날 때 우리들은 고생의 절정에 있었지. 만주 건국 직전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거든. 그 때 깜빡 잘못했으면 가족 모두 폐죽음을 당할 뻔했지.”

라고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중략)

“그때, 우리 동지가 12명 있었지만 지금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4명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일본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어. 그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저 세상으로 가 버렸지. 공산당이 된 사람들 짓이지.”⁷⁰⁾

69)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아세아문화사, 1999.), 조진기, 「만주이민의 현실왜곡과 체제순응」(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17호, 2002. 12.), 213면 재인용.

만주국 건설 전엔 ‘고생이 절정’이었다는 말은 지금은 고생이 끝났다는 의미이며, ‘일본편’에 서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공산당이 된 사람들’이 자신의 동료들을 죽였다는 말은 일본만이 자신들의 희망을 이루게 해줄 유일무이한 대상임을 강조한 것이다.

5. 징병·징용을 통한 천황의 국민되기

김사영의 「聖顔」(『국민문학』, 1943. 5.)은 어머니인 ‘분녀’의 현모양처로서의 삶, 장남 ‘갑수’의 북해도 탄광으로의 징용, 그 과정에서 자랑스러운 부상, ‘을수’의 ‘반도 청년에게 열린 영광의 길’인 징병을 자원하는 내용이 주된 작품의 줄거리다.

이 글을 쓴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다음의 인용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1938년 반도의 청년에게도 영광의 길이 열렸던 것이다. 어둠 속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을 올려다보며 스스로 나아가면 드디어 황민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었다.⁷⁰⁾

‘반도의 청년에게 영광의 길이 열렸던’ 1938년은 바로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된 해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을수’는 군대에 가기 위해 지원한다. 그의 지원에 대한 신념은 자발적이며, 확고하다. 그에게 일본은 더 이상 남의 나라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마음으로부터 천황의 충실한 신민이었다.

70) 이석훈, 「北の旅」(『국민문학』, 1943. 6.), 108면.

71) 김사영, 「聖顔」(『국민문학』, 1943. 5.), 19면.

을수는 마음을 먹고 흥증을 털어놓았던 것이다. 시대의 정세와 전국의 흐름과 조선청년의 장래와, 천자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과 이 시대에 살아가는 행복과……—지식이 있는 대로 꺼내서 을수는 진심이었다. 땀이 뻘손이 떨고 있었다.

「전 어머니의 자식이면서 어머니의 자식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저를 천자님으로부터 받으셨던 것뿐입니다.」⁷²⁾

다만 을수에게 늙은 어미와 불구인 형이 염려될 뿐이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지원병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지만, 어머니와 형의 반응은 의외였다.

응, 가는 게 좋다, 가거라. 나는 북해도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배웠지만, 특히 내지의 청년들이 강한 것에 놀랐다. 몸만이 아니야. 몸만이라면 나도 약한 편은 아니지만, 마음의 문제다. 시원하고, 용기가 있고, 인내심 강하고. 그런데 조선의 청년은 정반대다. 끈덕지고, 의지가 없고, 자포자기이고, 금방 도망치려고 하고. 비뚤어져 있다고. 목표가 없으니까 말이다. 큰 빛이 될 목표가. 그러나 이제 괜찮다. 확실한 길이 열렸으니까. 모두 가는 게 좋다.」⁷³⁾

형의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어미는 ‘을수’ 몰래 구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한다. 그 어머니는 “5년 전 농촌진흥운동이 꽃 필 때, 여자 손 하나로 집안을 갱생시키고, 나아가 부락 전체에 遊閑의 죄를 깨우치게 한 보이지 않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대중의 모범이 된다고 도지사에게 표창장”⁷⁴⁾을 받은 사람으로 이미 국책에 순응하는 어머니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여인이다. 그리고 아들을 지원병으로 보내는 어머니는 모정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일본의 어머니의 마음’을 고스란히 닮아있는 어머니다. 이처럼 아들 ‘西村乙洙’와 어머니가 지원

72) 위의 소설, 20면.

73) 위의 소설, 19-20면.

74) 위의 소설, 21면.

의 일로 얻은 감격만큼 일본의 국책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깃든 현실의 무거운 고통은 단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채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은 조선인들에게 미화되고 있었다. 그래서 분녀의 갑작스런 죽음에서도 ‘성모님 같은 얼굴’을 발견하는 이 소설은 밝은 미래의 전망을 가득 담고 끝을 맺을 수 있었다.

정인택의 「かへりみはせず, 뒤돌아보지 않으리」(『국민문학』, 1943. 10.)는 징병제를 찬양 미화한 소설인데, 천황폐하 만세, 조선징병제 만세를 목소리 높여 외치는 주인공의 내면의식을 통해 이즈음의 문인들 속에 깃든 보편적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고향을 떠난 지 1년 3개월, 전지에서 어머니에게 보내는 서간체 형식을 띠고 있다. 어머니는 전지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해서 전쟁에 임해야 할 자세에 대해 말한다. “사람에게 뒤떨어지지 마라, 용감한 행동을 해라”라고. 아들은 그것을 “천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죽어라”라는 말로 해석한다. 아들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나올 때 나라를 위해 죽을 것임을 각오한다. 그래서 아들은 그런 뜻을 편지로 밝히고 제국의 어머니로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 강조한다.

제가 나라일로 나올 때,

어머니, 곧 동경을 보여드릴게요. 벚꽃이 가득 핀 꽃의 동경을요.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영문을 모른 채, 깔깔 웃어대는 제 얼굴을 잠자코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죽는다는 겁니다. 죽으면 제가 황송하게도 야스쿠니신사에 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머니는 유족의 한 사람으로 저를 만나러 동경에 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동경이 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웃으며 죽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머니라면, 물론 제가 정말로 죽었을 때, 울거나 한탄하거나 이성을 잃거나 하지 않으시겠지요? 대군의 방패가 되어 전쟁의 뜰에서 꽃이 된 아들을 위해서 불쌍사납게 울며 슬퍼하는 일본의 어머니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⁷⁵⁾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눈부시게 죽는 것이야말로 천황의 나라에서 태어난 남자의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며, 소원으로 여기는 ‘나’는 그 죽음이 축하받을 일이라고 강변한다.

김사영, 「幸不幸」(『국민문학』, 1943. 11.)은 7세 때 병으로 절름발이가 된 ‘필남’과 그의 남편인 옛장수 ‘최 서방’,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으며 살다 외국 선교사의 박해로 고향을 떠나 광부로 일하게 되는 ‘대식’이 어떻게 신체제에 적극 협력하게 되는가를 그린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미국인 선교사 ‘설 목사’는 ‘무서운 인간’ ‘신뢰할 수 없는 인간’으로 묘사됨으로써 서구 제국주의, 특히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리고 ‘설 목사’는 ‘대식’이가 손퐁금을 만졌다는 이유로 모지게 혼을 내는데, 이것은 서구 제국주의가 아시아를 억압하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주창하는 대동아공영을 위한 태평양 전쟁은 여기서 당위성을 획득한다.

세 인물은 저마다 자신의 처지에서 신체제에 협력할 수 있는 충실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우선 ‘필남’은 우여곡절 끝에 ‘대식’의 도움으로 광부들의 밥을 지어주는 일을 맡게 된다. 이 일을 맡은 ‘필남’은 스무 명의 젊은 광부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게 된다. ‘자애로운 어머니’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의 남편 ‘최서방’은 옛장수를 하면서 얻는 폐품이 ‘미·영 척결, 신동아건설에 바로 연결되는 일’로서 ‘고철을 많이 모으면, 전쟁에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대식’은 광부이면서 ‘국어’를 배우거나, 군인이 되는 공부를 하는 ‘연성소’에 탄 광 일이 끝나면 스무 명의 광부들을 인솔해서 간다. 징용과 징병의 자연스러운 조화다. 대식에게 ‘연성소’는 단순한 교육 공간만으로 각인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연성소는 현재 삶의 모든 존재 의의가 부여되는 곳이다.

75) 정인택, 「かへりみはせず」(『국민문학』, 1943. 10.), 33-4면.

조선의 청년도 내지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스무 살이 되면 군인이 될 수 있어. 그런데 학교에 가지 않은 무학자는 곤란하니까, 그런 자들만 연성소에 보내서 많이 단련시켜 놓는거야. 내년에는 저 사람들이 훌륭한 군인이 되어 미국놈들을 쳐 부술거라고. 훌륭하지?76)

조선 청년들도 일본인들과 동등한 권리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대식’의 말은 이 당시 국책문학의 일반적 특성이다.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인위적인 사건 조작이라는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책문학의 성격에서 보면 매우 전형적인 주제의식을 가진 소설이다.

靑木洪의 「見學物語, 견학이야기」(『국민문학』, 1943. 12.)는 해군특별지원병제가 실시된 후 6 명의 해군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 견학을 떠나는 ‘나’의 보고문학이다.

주인공이 조선의 청소년들에게 “세기의 새로운 빛이 다가온다”고 천명함으로써 이야기는 시작된다. ‘한 사람’은 동시에 ‘전체’라고 말하는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같은 희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같은 이상의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전체의 정신’임을 일깨운다. 전체의 정신을 위해 과거 선조들의 생활에서 묻어나는 그릇된 민족의 전통을 일소하고 ‘모모타로(桃太郎)’의 ‘武勇’ 정신을 키워 ‘내일의 역사’에 빛나는 주역으로 활동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주인공은 일본으로 가기 전에 잠시 들린 진주 해군본부에서 혈서를 쓰고 지원한 조선청년들이 5백여 명이나 된다는 말을 듣고 감동한다. 그런 감동은 보편적인 조선인 마을과는 다른 진주 거리와 가옥들을 보며 ‘해군에게 감화된 마을’이라 정의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이런 감동은 단순히 감동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감동을 넘어서 당면한 현실 문제인 내선일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76) 김사영, 「幸不幸」(『국민문학』, 1943. 11.), 69면.

까지 나아간다. 이 소설의 창작 의도를 깨우쳐 주는 대목이다. ‘나’가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현대 조선의 청장년층의 군대 교육에 의한 방법, 다른 하나는 내선인의 친밀한 교류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맺어지는 내선 결혼이 그것이다.⁷⁷⁾

내선일체론의 한 견에는 일본어 사용 문제가 거멸못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나’는 가감 없이 드러내기도 한다. 일본어 사용은 모든 것의 ‘본령’이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어 사용은 곧 모든 문화에서 ‘조선것’을 배격함을 의미한다. ‘나’의 투로 말하면, 일본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다미방에 길들여져 있었으면서도, 조선에 돌아오면 다다미로 개조하지 않고 온돌방에 익숙해지는 ‘물거품’의 행태까지 바뀌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완전한 일본문화로의 개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어를 사용하는 동안 내선일체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는 ‘나’의 주장은, 그래서 인상 깊다. 조선의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조선어는 ‘고민의 종자’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내선일체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진 셈이다.

소설은 일본으로 가는 배 위에서 ‘나’가 소년들에게 다음을 기약하며 ‘안녕’이라고 말하며 끝난다. 그런데 그것은 조선의 낡은 것으로부터의 작별을 고하는 인사며 동시에 ‘새 세기의 빛’을 향해 가는 희망의 인사이기도 하다.

최재서의 「燧石」(『국민문학』, 1944. 1.)은 학도병 징집령⁷⁸⁾이 떨어진

77) 青木洪, 「見學物語」(『국민문학』, 1943. 12.), 76면.

78) 일본 정부는 1943년 3월 1일을 기해 조선에 징병제도를 실시할 것을 공포한다. 그리고 10월에는 전문대생이나 대학생들의 징병 유예를 폐지한 뒤 모두 11월 20일까지 학도병으로 징집할 것을 공고했다. 학도병 문제가 일어나자 지식인이나 전문대생이나 대학생들은 일본을 위하여 총·칼을 들고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며 징집령에 반대했다. 당시 학도병 징집 대상은 국내에서만 2천명, 일본유학생이 2천 5백명이나 되는 상당한 숫자였으나 마감을 앞둔 1주일 전까지 1/3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놀란 총독부는 조선의 명사들을 동원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권고 연설을 하게 했다.

후 ‘나’는 권고 연설을 위해 급조된 학도선배단의 일원으로 경상북도를 방문한다. 그때 경주를 들러 경험한 기억을 떠올리는 회고담 소설이 수석이다.

이 소설에 보면 ‘전쟁은 많은 것을 발명했지만, 또 많은 것을 부활시켰다’고 강조한다. 부활된 예 중 하나가 부싯돌이다. 발명과 부활은 새 것과 옛 것으로 대응된다. 이 소설에서 옛 것의 부활은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을 댄질하는 대용품 사용이라는 살풍경한 모습 대신, 옛정취와 따뜻함을 가진 추억의 것으로 읽힌다.

발명과 부활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 단초는 다음의 인용에서 찾을 수 있다.

세상이란 재미있단 말야. 전쟁이 나자 부싯돌이 나오고, 짚신이 유행하고, 우마차가 설치니 말이야. 고마운 세상이네. 그는 무릎을 치며 쾌재를 불렀다.

이 늙은이가 아직도 부싯돌이냐고 놀렸던 자들이 말이야, 요즘은 배급 성냥이 딸리니깐 엄살을 떨어요. 또 고무신이다, 작업신이다 해서 요즘 농사군은 짚신도 만들 줄 몰라. 그래서 농사가 되겠는가 말이다. 천년 동안 짚신 신고 살아온 농사군이 말이야. 그리고 우마차는 어떤가? 화물차가 많으니깐 우마차를 때려 부셔서 장작감으로 써 버린 생각 없는 놈이 우리 마을에서 두 셋은 있어. 머, 벌어도 신통치 않았던 모양이지만서도. 그런데 나라가 열심히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편리한 것들이 또 나타났으니 고마운 일이고말고.……79)

옛 것의 부활은 ‘고마움’이라는 단어에 수렴된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 사건의 부활로 이어진다. 즉, 이 늙은이의 옛 직업이 멧돼지 사냥꾼이었다는 것, 그리고 경주에 살고 있다는 것은 신라시대의 불국사와 김대성, 그리고 곰 전설의 부활로 연결된다. 이런 곰전설은 일본 구주에서의 곰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구주에서는 신라와 관련이

79) 최재서, 「燧石」(『국민문학』, 1944. 1.), 109면.

있는 예족을 응습이라 불렀으며, 또 한인(韓人)을 고마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백산맥을 따라 남하하던 예, 맥족 중 일부가 구주로 건너갔다는 것이다. 즉 내선동조론을 끌어들이기 위한 소설 장치로 부식들이 사용된 것이다.

부식들을 사용하는 사냥꾼 노인은 또한 자연스럽게 러일전쟁과 청일전쟁에서 일본을 도운 조선인 포수의 이야기로 옮겨간다. 그리고 이런 모든 서사는 다음의 인용으로 수렴된다.

그런데 얼마 전 애국반장이 오셔서, 이번 조선의 전문대학생들에게도 내지인 학생과 마찬가지로, 육군에 특별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이번에 나오는 학생들은 곧 황군의 간부가 될 자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절호의 기회라. 조선인 학생들이 일어서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겠나. 깜작 놀라서 우리 손주 녀석은 어떡하고 있는가 물었더니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고향에 돌아온 듯 한데 당신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냐고 하는 게야. 나는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딸에게 편지를 쓰게 했지요. 그랬더니 딸도 의기가 없어서 아무래도 본인의 뜻이 정해지지 않은 듯 하대나 어쩔대나 하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게야 싫어서 어젯밤 집을 나와 70리 길을 달려 왔습니다. 이래 봐도 하루 120리는 건넌 다리니까. 70리 정도야 문제가 아니지.⁸⁰⁾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요즘보다 더 좋은 시절이 없었다고 강변하는 늙은 포수의 이야기는 전통의 부활을 빙자한 새로운 시대 정신, 즉 학도병 징집령의 발명으로 귀결되고 만다.

정인택, 「각서」(『국민문학』, 1944. 7.)의 주제는 ‘홀룡해라’라는 단어로 수렴된다. 아버지가 광산열에 들떠 집과 전답을 다 넘기고 어머니와 ‘나(淳)’를 버려두고 만주로 도망가고 난 뒤 어렵사리 생계를 꾸려가는 ‘나’의 어머니 덕에 ‘나’는 대학까지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홀룡해 저라’라는 말씀을 하신다. 하지만 ‘나’는 도대체

80) 위의 소설, 118-9면.

어떻게 하는 것이 훌륭해지는 것인지 가늠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단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무한한 애정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애정에 보답하는 것이 곧 훌륭하게 되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런 ‘나’에게 소위 ‘국민적 감정’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징집 연기 금지령이 내리고 친한 친구들이 출진하는 것을 보고 ‘나’는 훌륭해진다는 말의 의미를 음미하게 된다. 심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게 된 것이다.

내 짧은 생에 있어서 이처럼 커다란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다. 나는 망연자실, 오랫동안 눈 앞에 단좌하고 있는 沖 군의 흰 얼굴을 응시하고만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대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沖 군의 당당함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처량한가? 남자로 태어나서, 조국이 흥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창을 들고 일어설 수 없는 비참함을 나는 처음으로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느꼈던 것이다.

뒤를 부탁하네.

沖 군이 웃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심하게 머리를 흔들며 ‘나도 데려가 주게. 뒤 같은 것 부탁받고 싶지 않네.’

마음속에서 외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니의 일은 조금도 염두에 없었다.⁸¹⁾

‘조국이 흥망의 기로에 서 있는데도 창을 들고 일어설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느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 그것은 조선인 학도에게도 영광스러운 병사가 될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 길로 나서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어머니의 얼굴’과 ‘조국의 간성’ 사이에서 ‘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흔들리는 ‘나’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할 사람은 어머니뿐이

81) 정인택, 「각서」(『국민문학』, 1944. 7.), 96면.

다. 어머니는 아들보다 먼저 영광스러운 국가의 간성이 되는 길을 결정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지원병 원서를 접수하고 온 날 ‘나’는 어머니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이렇게 답한다.

무슨 말은 하는 거냐. 너는 나라의 간성이다. 이제 너는 야스쿠니 신사에 봉안되어 신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는 정말로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 준 것이야.

어머니는 말을 끊고 세계 내 불에 불을 부본다. 아아, 나의 어머니는 역시 ‘세계 제일의 어머니’였다.⁸²⁾

진충보국(盡忠報國) 하겠다고 결심한 주인공이 자신의 삶의 내력을 유서를 닮은 각서로 써서 남기려는 의도는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일을 기록해두려 함이다. 즉, 충후에서 지원병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충후 부인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상을 이 작품은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뒷일’을 일본인 친구인 ‘沖’의 여동생 ‘도끼꼬’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결말 구조는 내선일체와 대동아공영권을 위한 전쟁수행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유기적 관련물임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金村龍濟(김용제)의 「壯丁」(『국민문학』, 1944. 8.)은 동거하던 종제(從弟) ‘장성’이 징병 검사에 합격해 군대를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나’의 심경을 피력하고 있는 소설이다. 종제가 입대하는 마당에 ‘나’는 ‘돈이 되지 않는 일과 가난한 생활에 쫓기기 바쁜 무력한 사람’이라 불행한 백모와 종제들에게 아무 힘이 되어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렇지만 종제의 입영은 “나의 마음을 싸움에 임하는 병사의 마음으로 바꾸어주며, 가룩한 유족의 기분으로 만들어 줄 것”⁸³⁾이라 믿는다. 그리

82) 위의 소설, 98면.

고 백모택 외동아들인 ‘장성’이가 입대를 하면 그들을 잘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다짐한다. 왜냐하면, 징병 입영은 ‘긴 조선의 역사에서 실로 처음인 빛나는 대사건’으로 집안에서 병사가 나온다는 것은 ‘자랑’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책임’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함경남·북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제1회징병검사’ 상황을 참관하기도 한다. 참관 기획 의도는 “대동아 전쟁을 자신들의 피로써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해보이겠다고 일어난 조선 청년의 모습을 보고, 그들 장정(壯丁)을 중심으로 한, 진실한 미담가화(美談佳話)를 문학적으로 쓰게 하여, 한 권의 걸맞는 읽을거리로 출판하고자”⁸⁴⁾ 함에 있다.

이 장정들로 인해 조선의 미래는 행복하고 아름다울 것이라 믿는 ‘나’는 장정들에게 ‘우리들의 비료가 되려고 자신을 버리는 임무’에 대해 소리 높여 외친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나태한 생활과 미온적인 창작 행위를 반성한다. 징병 검사장에서 만난 ‘장정’들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통감한 ‘나’는 조선의 장정들이 “황국 일본의 군문에 들어서려는 것, 대결전의 중임을 분담하여 일어섰다는 것, 이 위대한 역사적 현실의 장관 자체가 훌륭한 세계적인 미담이라는 것”을 소상하게 기록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 뒤 ‘나’가 기획한 조선인 출신의 군인 군속의 전몰 및 출정자 가정을 위문하려고 떠나기 전날, 고향의 조카 ‘동숙’ 군의 전사 소식을 듣는다. 그 소식을 접하고 군인 가정 위문을 예정대로 할 것인지, 전사한 조카의 상가에 먼저 가봐야 할지를 혼자 고민하며 소설은 끝난다.

그렇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건, 그것은 총후에서 멀사봉공의 정신을 가다듬는 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그런 고민 자체가 천황의 신민된 자로서의 마땅한 소임임을 거듭 강조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오영진의 「若い龍の郷, 젊은 용의 마을」(『국민문학』, 1944. 11.)은 함

83) 金村龍濟, 「壯丁」(『국민문학』, 1944. 8.), 71면.

84) 위의 소설, 73면.

동해군장례식에 참례하기 위해 해병단을 1주일 동안 방문한 기억을 정리한 보고문학이다. 이 소설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는 다음 인용에서 잘 나타나 있다.

자네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의 실재를 믿지 않으면 소위 천우신조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헛것이라는 것이 된다. 그러면 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주의 중핵을 이루는 대생명인 것이다. 이 우주의 대생명은 그대로 우리 국체에 현현하고 있다. 우리 국체는 실로 절대위를 중심으로 하는 지상유일의 이상국가의 현현이다. 중핵은 現人神, 세포는 국민.⁸⁵⁾

이런 말을 하는 ‘신병 과장’은 ‘나’에게 팔굉일우(八紘一字)를 다만 인간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만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위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 열렬한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 각인된다.

인류는 새로운 역사 창조의 위대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당시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세계사적 전환을 가져다 줄 전쟁으로 미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전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은 ‘지상유일의 이상국가’이며, 천황을 구심점으로 하여 ‘세포’인 전국민은 국체 현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멸사봉공이테올로기가 위 인용의 핵심이다.

이런 신병 과장 밑에서 교육 받는 조선인 지원해병군들은 행운이다. 그래서 ‘나’는 ‘나라에 바친 몸’인 조선인 지원병들을 통해 희망을 보는 것이다.

이 소설이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岩佐軍神’생전에 가족에게 보낸 다음의 서신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감동의 깊이를 따라가면, 거기에는 굴절된 비애가 도사리고 있다.

昭和의 鳳業 아직도 어중간한데 前途益益多端. 지금 한 걸음 잘못하면,

85) 오영진, 「若い龍の郷」(『국민문학』, 1944. 11.), 85면.

삼천년의 눈부신 역사는 하루 아침에 파탄이 나고, 앞으로의 일본 민족의 壯圖는 중도에 좌절한다. 이 가을, 이 세상에 생을 받아 이 난관 돌파의 사명을 짊어질 수 있고, 게다가 군인으로 국방의 제일선에 서서 야마토 역사의 옹호자로서, 대동아 민족의 추진자로서, 목하 시국에 대처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최대의 영광인 것이다. (중략) 원하건대 태어나 스물일곱 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마음을 다해 주셨는데 자식으로서의 도리 아직 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길을 완수하면 뒤에 죽더라도 칭찬하여 주십시오. 또 도중에 다 하지 못하더라도 直治는 혼백이 돌아갈 곳을 얻을 것입니다.

벚꽃 저야할 때 지는 것이야말로
야마토의 꽃이라고 칭송하는 이유이다.
몸은 혹 이국의 바다로 사라지더라도
끝없이 지킬 것이다, 야마토 황국을⁸⁶⁾

위의 인용에 비애가 스며있음은 야마토 민족, 대동아 민족의 추진자, 일본의 정의, 대동아 민족의 복지와 평화, 황국의 안위, 이런 단어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감동은 사실 역사적 비애를 완전히 덮어버린 조선민족의 현실이 녹아 있다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 감동은 여타 소설을 읽을 때 오는 감동과는 다르다. 현실과 조선인의 내면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비애는 증폭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비애는 일체가 역사라는 이름으로 호명할수록 조선인에게는 반역사적 의미를 띠게 만든다. 그래서 이 소설은 역사적이면서도 반역사적이다. 정비석의 「落花の賦, 낙화의 부」(『국민문학』, 1945. 1.)는 ‘전시국민경제연구소’에 갓 입사한 주인공 ‘현’이 ‘폐회저’라는 병에 걸려 죽어 가면서 비상시 진정한 시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터득해가는 과정을 ‘나’가 관찰하여 기록한 소설이다.

이 소설의 압권은 ‘현’이 병상에서 퇴원하면 ‘낙화의 부’라는 시를 쓰겠다고 다짐하는 데 있다. ‘현’이 굳이 ‘낙화의 부’를 쓰려는 이유는 ‘잘

86) 위의 소설, 90면.

못된 시국 관계의 시를 쓰는 것보다는 낙화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쪽이 훨씬 더 일본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낙화는 곧 '젊은 독수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독수리의 아름다움은 곧 벚꽃의 아름다움이며 일본정신의 상징이다. 그리고 그 일본정신은 "죽어야 할 때 깨끗하게 떨어져 가는 아름다움에 있다."⁸⁷⁾ '현'이 '낙화'를 언급한 것과 '현'이 중병인 '폐회저'에 걸린 것은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다.

자신의 민족의 아름다움을 일반 민중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 놓으면 문학은 그것으로 목적을 다한 것으로 한 민족의 美가 한 점으로 응축되면 그 이로움은 돈보다 낮고, 그 향기는 蘭과 같다. 그것을 지금의 시인들은 알지 못하고 웅성웅성 떠들고 있으니 가소롭다. 시인은 교육가도 정치가도 아니고 더구나 거리에서 뺑가리치는 사람도 아니다. 시인은 어디까지나 시인이며, 시인의 임무는—적어도 이 전시하에 있는 시인은 자신의 민족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속에 불러 일으키는 것이 유일한 물러설 수 없는 임무인 것이다.⁸⁸⁾

'민족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속에 불러 일으키는 것이 유일한 물러설 수 없는' 시인의 임무임을 자각한 '현'은 '젊음 독수리'의 가미카제(神風)처럼 산화한다. 소설 첫머리에 김종한의 시구를 인용한 이유가 여기서 분명해 진다. '순수건처럼 조심하고자 희망'하지만 '더러워져' 가기만 하는 몸을 산화함으로써 시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 것이다.

石田耕人(최재서)의 「民族の結婚, 민족의 결혼」(『국민문학』, 1945. 1. -2.)은 표면적으로는 성골 출신인 김춘추와 가락국 변족 출신인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의 결혼을 둘러싼 역사소설이다. 당시 법도에 따르면 둘은 절대 혼인할 수 없는 계급이지만, 그런 굴레를 극복하고 혼인하

87) 정비석, 「落花の賦」(『국민문학』, 1945. 1), 73면.

88) 위의 소설, 73면.

여 삼국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 이 소설의 요지다. 따라서 이 소설이 곧 내선일체를 표방한 소설이라고 말할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그런데 굳이 천 여년 전의 역사를 들추어 ‘민족의 결혼’을 문제 삼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것은 행간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역사적 전범에서 ‘민족의 결혼’의 좋은 예를 찾아 내선일체의 거울로 삼고자 함이 이 소설의 목적인 것이다. 이 소설에서 내선일체와 연관이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어려운 일인 것은 압니다. 또 생각에 따라서는 반역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단지 신라를 크게 살리는 길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신라는 단순한 신라가 아닙니다. 삼국을 통일해, 일본이나 당나라까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신라입니다. 썩은 가지에 달라붙은 채 시들어 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눈 딱 감고 새로운 가지를 심을 것인가, 지금이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성골이란 무엇입니까? 신라 왕통을 잇기 위한 고귀한 핏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존귀함, 저 같은 것이 함부로 입에 담을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 상고는 제외하고, 내물왕(奈勿王)부터 쳐도 이미 10대 250년 동안, 이 귀한 핏줄은 한 발자국도 밖으로 새어 나간 적이 없습니다. 또 밖에서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한 곳에 머물면 생기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성골의 핏줄이 오랫동안 탁해지거나 생기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뭐 그것은 저의 쓸데 없는 기우라고 하더라도, 오늘의 신라는 굳이, 성골에 얼마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연못을 작게 만들어 버리면, 큰 물고기는 들어 올 수 없습니다.⁸⁹⁾

‘유신’이 여동생 ‘문희’에게 혼전 임신을 시킨 ‘춘추’를 찾아가 혼인 문제를 어찌하면 좋을지에 대해 의논하면서 나눈 대화다. 성골이 자신들의 피만 고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신라가 ‘탁해지거나 생기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김유신의 말엔 뼈가 있다. 역사 최초의 ‘민족의 결

89) 石田耕人, 「民族の結婚」(『국민문학』, 1945. 1.), 94면.

혼', 즉 신라와 패망한 가락국의 국경을 뛰어넘는 위대한 결혼을 강조하는 '유신'의 말은 역사를 추동하는 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즉, 성골의 피만 강조한 신라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음을 말함으로써 신선한 피의 섞임만이 신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임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킨다. '피의 섞임', 그것은 곧 내선일체의 핵인 것이다.

이 소설이 역사소설 형식을 빌려 내선일체를 표방하고 있다는 근거는 소설 부기에도 있다. 최재서는 이 소설을 창작함에 있어서 쓰에마츠 야스카즈(末松保和)의 신라삼대고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쓰에마츠는 주지하듯이 '임나일본부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A.D 396년 전으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이 학설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그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날조한 식민사관의 하나인 타율성이론의 대표적 산물로서 남선경영론(南鮮經營論)과 궤를 같이 한다. 즉 식민지기에 일본이 한반도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퍼뜨린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내선일체를 내선동조론으로 확대해감으로써 조선인들을 전쟁터에 쉽사리 불러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했던 일본은 역사학자들을 앞세워 임나일본부설을 체계적 논리를 갖춘 역사적 사실로 고정함으로써 징병의 역사적, 심리적 타당성을 설파할 수 있었다. 최재서가 이 소설을 왜 집필했는지는 이제 규명됐다. 그래서 이 소설은 내선일체 논리를 입증하는 친일소설로 읽히는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국민문학』 소재 이중어 소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 결과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친일소설의 경우 몇 가지 주제로 대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것은 내선연애담 혹은 내선결혼담, 지식인들이 군국주의로 무장해가면서 충실한 천황의 신민이 되어가는 이야기, 국민의 이름으로 호명되는 여성의 ‘국민화 프로젝트’, 오족협화론과 그 연장인 만주 개척, 징병·징용을 통한 천황의 국민되기 등이다.

둘째, 『국민문학』 창간 초기에는 친일작품과 비친일 작품이 혼효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친일작품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친일작품의 경우 『국민문학』 발간 초기에는 내선일체와 관련한 내선결혼담이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전쟁이 깊어갈수록 대동아공영권과 관련한 징병, 징용, 군국의 ‘어머니상’ 등과 관련한 작품들이 많이 쓰인다는 사실이다.

넷째, 『국민문학』이라는 어용잡지에 실린 이중어소설이지만 모든 작품이 친일작품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부분은 지면 관계상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고를 달리 하여 구체적으로 규명하려 한다.

주제어 : 국민문학(national literary), 군국의 어머니(mother of military nation), 이중어소설(novel of dual language), 내선일체(Japan and Korea are one), 친일소설(novel of pro-Japanese), 징병(conscription), 징용(draft), 만주개척(reclaim of Manchuria)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국민문학』

2. 논문 및 단행본

- 김사랑, 「朝鮮文學風月錄」, 金史良全集編纂委員會, 『金史良全集 IV』, 東京, 河出書房新社, 1973.
- 김양선,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와 여성(성)의 전유양상」, 『실천문학』 2002년 가을호.
- 김윤식, 「작가와 말의 관계에 대한 임화의 태도」, 『실천문학』 2002년 가을호.
-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3.
- 김재용, 「친일문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시론」, 『실천문학』 2002년 봄.
- 김재용 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 노상래, 「김사랑의 창작어관 연구」,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82집, 2003. 12.
- 송기한 외 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 태학사, 1991.
- 송민호, 『일제말 암흑기의 문학 연구』, 새문사, 1991.
- 신희교, 『일제말기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유진오 「國民文學といふもの」, 『국민문학』, 1942. 11.
- 윤대석, 「1940년을 전후한 조선의 언어 상황과 문학자」, 『한국근대문학 연구』 제7호, 2003.
-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2, 평민사, 1995.
- 이선옥, 「평등에 대한 유혹」, 『실천문학』 2002년 가을호.
-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83.
- 조진기, 「만주이민의 현실왜곡과 체제순응」,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17호, 2002. 12.
- 최원규 편, 『일제말기의 파시즘과 한국사회』, 청아출판사, 1989.
- 최재서, 「國民文學の要件」, 『국민문학』, 1941. 11.
- 최재서, 편집후기, 『국민문학』, 1942. 5·6 합병호.
- 최재서, 『轉換期の朝鮮文學』, 인문사, 1943.
- 가와 가오루, 「총력전 아래의 조선 여성」, 김미란 역, 『실천문학』 2002년 가을호.

姜德相, 『朝鮮人學徒出陣』, 동경 : 岩波書店, 1997.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동경 : 미래사, 1997.

니시카와 나가오, 『국민이라는 괴물』, 윤대석 역, 소명출판, 2002.

릴라 간디,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이영욱 역, 현실문화연구, 2002.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윤희숙 역, 나남출판, 2002.

와타나베 아쓰요, 「일제하 조선에서 내선결혼의 정책적 전개와 실태」, 서울대 석사논문, 2004.

우에노 치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 이선이 역, 박종철출판사, 1999.

응구기 와 씨옹오,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문학』, 이석호 역, 인간사랑, 1999.

호테이 토시히로, 「일제 말기 일본어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 논문, 1996.

이 논문은 2004년 4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4년 5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4년 5월 28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